

2014년 전남 「서남권 정책 토론회」

일시 : 2014. 1. 9.(목) 오후 2시

장소 : 전남 중소기업 종합 지원센터 2층

주최 :  민주당 전남도당 지방선거기획단

| 인사말 |



민주당전남도당위원장
국회의원
이 윤 석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갑오년(甲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청마의 해 시작을 이처럼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과 함께 맞이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해에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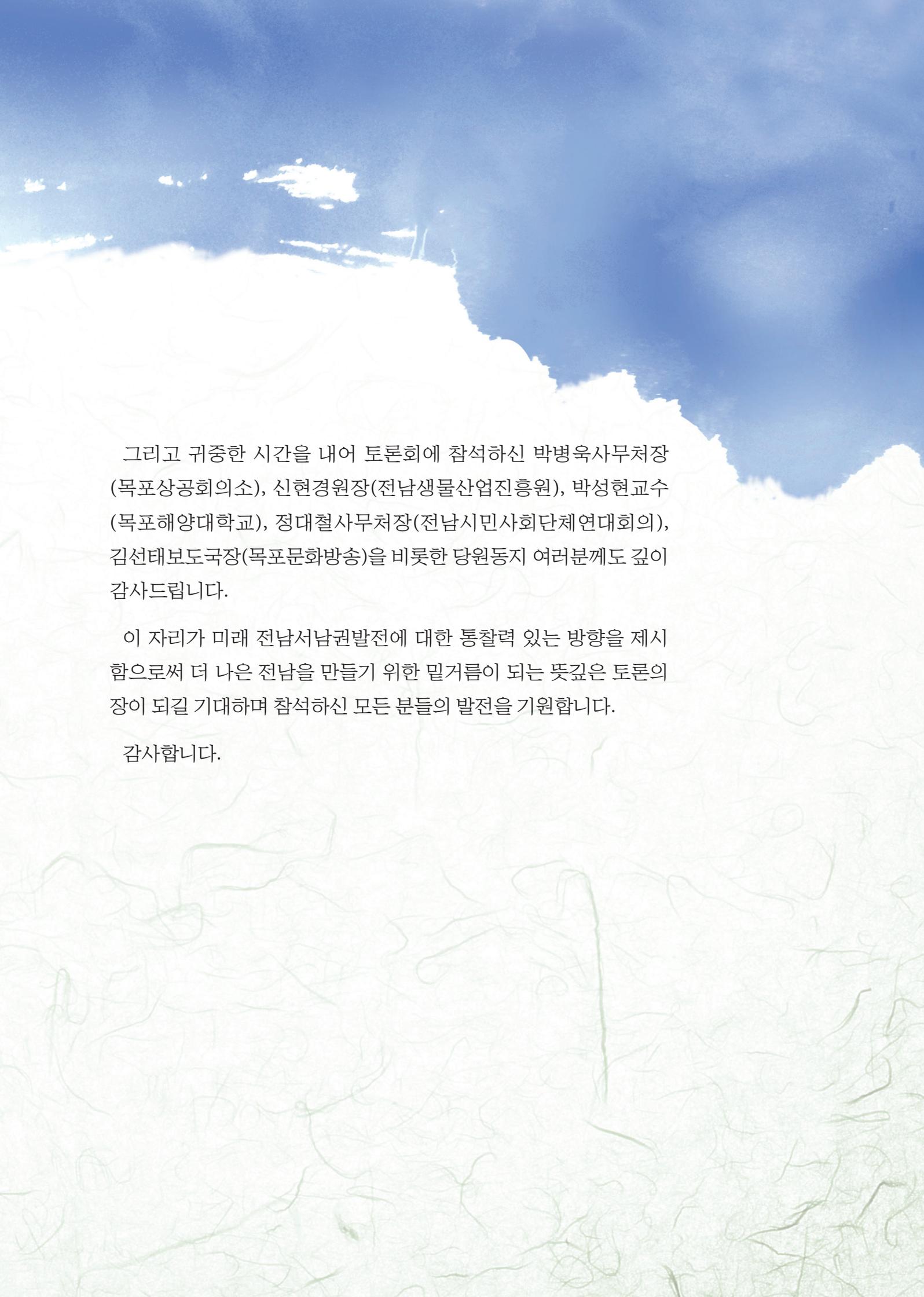
2014년은 60년 만에 돌아온 갑오년(甲午年), 청마의 해입니다.

청마의 해라는 의미 속에는 '봄의 기운이 싹트는 희망적인 한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6·4 전국동시지방 선거가 있는 2014년을 승리의 기운이 싹트는 희망적인 한해로 만들기 위해 전남 서남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201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수렴해 중앙당의 공약과 전남지역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전남 서남권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토론회를 개최하기까지 수고를 다해주신 전남발전연구원 이건철 원장님과 토론회에 참여해 귀한 말씀을 해주실 분야별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토론회에 참석하신 박병욱사무처장 (목포상공회의소), 신현경원장(전남생물산업진흥원), 박성현교수 (목포해양대학교), 정대철사무처장(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선태보도국장(목포문화방송)을 비롯한 당원동지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가 미래 전남서남권발전에 대한 통찰력 있는 방향을 제시 함으로써 더 나은 전남을 만들기 위한 밑거름이 되는 뜻깊은 토론의 장이 되길 기대하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인사말 |



민주당 전남도당 지방선거기획단장
국회의원
황 주 홍

존경하는 전남도민,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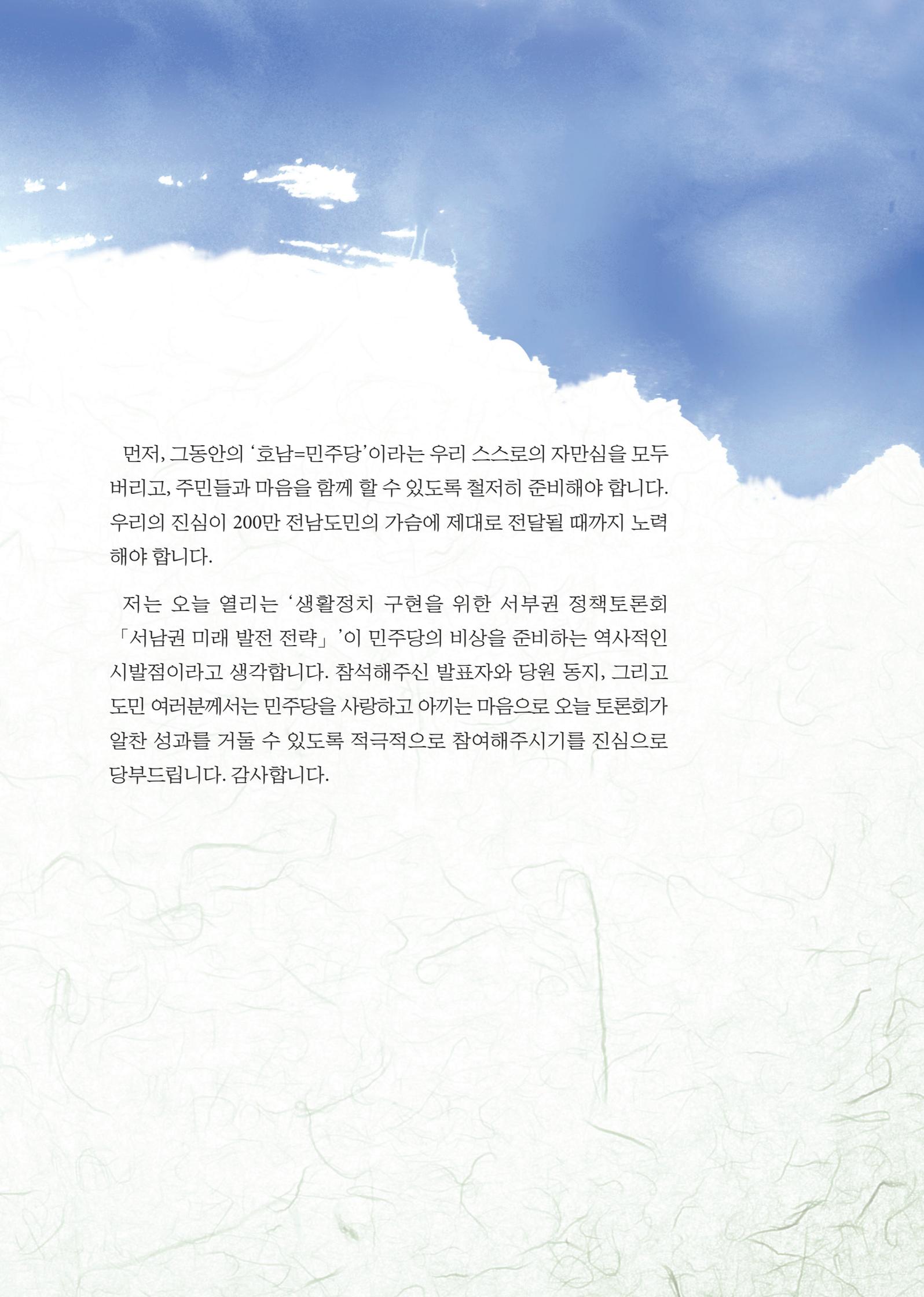
희망찬 2014년 갑오년 청마의 해를 맞아 우리 전남이 더 큰 발전을 이루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당은 대선 패배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수권정당으로 인정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전통적인 지지층뿐만 아니라 호남으로부터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히려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주던 호남민심이 우리 당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마저 적지 않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입니다.

다가오는 6·4지방선거에서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우리 당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더욱 냉정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당원동지 여러분께서는 당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6·4지방선거를 통해 민주당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만 할 막중한 공동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은 ‘약무호남 시무국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약무전남 시무민주’라는 필사즉생의 각오로 6·4지방선거를 준비하겠습니다. 전남에서부터 민주당이 힘차게 부활의 날개를 펼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호남=민주당’이라는 우리 스스로의 자만심을 모두 버리고, 주민들과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진심이 200만 전남도민의 가슴에 제대로 전달될 때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열리는 ‘생활정치 구현을 위한 서부권 정책토론회 「서남권 미래 발전 전략」’이 민주당의 비상을 준비하는 역사적인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석해주신 발표자와 당원 동지, 그리고 도민 여러분께서는 민주당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오늘 토론회가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식 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 ~ 14:10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선언 ■ 국민의례 ■ 내빈소개 	사회자
14:10 ~ 14:30 (20')	<p>【인사말】 이윤석 (전남도당 위원장/국회의원/원내부대표) 황주홍 (전남도당 지방선거기획단장/국회의원) 지역위원장</p>	인사말씀 토론자 소개
14:30 ~ 14:55 (25')	<p>【주제 발표】 ▶ 주제 : 서남권 미래 발전 전략</p>	전남발전연구원 이견철 원장
	【사회자】	전남대학교 이정록 교수
	【분야별 발표】	
14:55 ~ 16:10 (75')	1. 고부가가치 친환경 농수산 가공산업 육성전략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신현경 원장
	2. 서남권 경제활성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전략	목포상공회의소 박병욱 사무처장
	3. 새해벽두 설국열차 안에서	목포문화방송 김선태 보도제작국장
	4. 재생과협력 그리고 재활용을 통한 행복지역 만들기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대철 사무처장
	5. 해양레저 관광산업의 활성화 전략	목포해양대학교 박성현 교수
	6. 서남권 미래발전 전략	동신대학교 허기택 교수
16:10 ~ 16:30 (20')	【질의응답】	청 중
16:30	■ 폐회선언	사회자

목 차

인사말

이 윤 석 /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황 주 흥 / 전남도당 지방선거 기획단장

발 표

서남권 미래 발전전략1

이 건 철 / 전남발전연구원 원장

서남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21

박 병 옥 / 목포상공회의소 사무처장

고부가가치 친환경 농수산가공산업 육성전략31

신 현 경 /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원장

전남 특성화 산업인 해양레저관광 산업의 활성화 전략41

박 성 현 / 목포해양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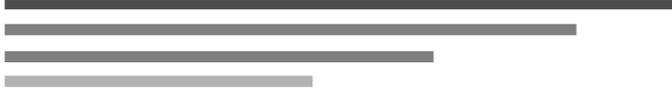
재생과 협력 그리고 재활용을 통한 행복한 마을과 지역 만들기57

정 대 철 /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새해 벽두, 설국열차 안에서65

김 선 태 / 목포문화방송 보도제작국장

참고자료73



서남권 미래 발전전략

- 환황해권 대중국 교류 및 해양관광 중심 -

이 건 철

전남발전연구원 원장

서남권 미래 발전전략

"환황해권 대중국 교류 및 해양관광 중심"



이 건 철(전남발전연구원 원장)

Contents

- I. 서남권의 위상
- II. 서남권의 풍부한 발전잠재력을 발현시킬 시점
- III. 서남권의 부문별 주요 성장동력프로젝트
- IV. 투자유치전략
- V. 목포권 발전 선행과제

I. 서남권의 위상

❖ 과거 영광 재현 노력 부족 및 정부 불균형발전정책 영향으로 발전 정체

- 목포항은 목포항은 일제시대 전국 3대 항만으로 전국 굴지 식량공급 및 물류거점
- 경제개발과정에서 정부의 과도한 소외로 낙후의 대명사로 전락
 - 호남고속도로 조차 종점이 목포가 아닌 순천이며, 남해고속도로는 부산 ~ 순천간 건설 후 40년이 지난 2012년에야 목포 연결
- 주력산업(도자기 → 어망 → 조선)이 차례로 쇠퇴 혹은 정체, 지역경제력 저하
- 목포 인구밀도가 비수도권에서는 가장 높은 도시(전국 10위)로 도시성장 곤란
 - km²당 인구수 5천여명(광주 2,800명, 여수 624명, 순천 304명, 전국 평균 488명)

❖ 서남권은 주력산업 쇠퇴, 개발가능면적 부족 등의 부정적 여건에 직면해 있어 풍부한 잠재력을 발현시키는 총체적 노력 필요

3

II. 서남권의 풍부한 발전잠재력을 발현시킬 시점

❖ 서남권은 한반도 해양의 관문이자 대중국전진기지로서의 잠재력 풍부

- 중국과 일본의 해양 중심, 서해안과 남해안의 결절지역으로 한반도 해양의 관문
 - 중국 상해, 천진, 대련, 일본 오사카, 후쿠오카 등 동북아 주요 도시 1,000km 이내에 입지(비행거리 2시간 이내 18개 도시에 1억명 인구 거주)
- 중국 최대의 경제도시인 상해권(상해와 남북으로 연접해 있는 浙江省과 江蘇省)과 어느 나라, 어느 지역보다 가까워 대중국전진기지 잠재력 보유
 - 목포~상해간 671km, 군산~상해간 790km, 인천~상해 917km
 - 浙江省과 江蘇省은 1인당 GDP가 상해시, 북경시, 천진시를 제외한 省 중 최상위 수준이고, 인구규모가 1억 3천만여명
- 상해권과 서남권간 제산업에서의 교류 · 협력 강화전략 추진 시급

❖ 서남권은 한반도 해양의 관문으로서 급증하는 중국관광객 유치 용이

-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신안·진도권 해양레저시설이 확충되면, 급증하는 중국관광객의 해양관광 최적지
 - 18만여명(1978) → 570만여명(1996) → 3,500만여명(2006) → 8,700만여명(2012)
 - 신혼부부 연간 1,278만쌍 탄생(일본 67만쌍, 한국 33만쌍)
- 전국 최대의 해양·도서자원과 일사량을 보유하여 3S관광의 최적지
 - 서남권은 전국 최대의 도서자원, 갯벌에 전국 평균보다 10% 많은 전국 최대의 일사량을 활용하면 3S(Sea, Sun, Sand)관광의 최적지

❖ 제조업과 농업 부문에서도 대 중국 교류·협력 가속화 전망

- 江蘇省과 浙江省 연안 산단과 전·후방연관효과가 높은 부품산업 등을 배치하면 양 권역간 교류·협력의 파급효과 증대 전망
- 중국 식생활패턴이 곡물 중심에서 육류, 신선채소, 과일, 화훼 등 소득탄력적 농산물부문으로 변화되어 고품질 농수산물 대중국 수출 급증 전망

❖ 대규모 성장동력 프로젝트 추진으로 지역활력 기대

-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솔라시도) 조성으로 동북아 해양관광명소 부상 계기
- (관광위락형) 서남권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외자유치 활성화
- 모터스포츠산업 클러스터 조성
- 호남고속철도(무안국제공항 경유) 조기 건설 및 제주 연장
- 남해안을 '제2의 수도권'으로 육성하는 「남해안 선벨트 조성사업」 추진
 - 남해고속철도(목포 ~ 순천 127.5km) 건설 및 남해안 크루즈 개설
- 서남해안일주도로, 압해 ~ 암태(새천년대교) 등 배후교통망 확충 가시화
-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및 목포신항 확장

Ⅲ. 서남권의 부문별 주요 성장동력프로젝트

1 국제해양관광거점 조성

❖ 태양과 바다의 레저타운(솔라시도 : Solar Sea 道)

- 중국 등 대규모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국 최초 고품격 국제관광레저도시
- 위치/개발면적 : 해남 산이면, 영암 삼호읍 일원 33.9km² (1,026만평)

지구명	면적(km ²) (만평)	도입시설	비고
삼호	8.7 (263)	골프장, 해양스포츠레저단지	상반기 착공 예정
구성	21.9 (661)	페어웨이빌리지, 통합의학병원, 음식문화촌, 컨벤션, 워터파크, 마리나	기공(13. 12. 13)
삼포	4.3 (130)	복합레저스포츠타운, 모터스포츠	

- 사업비 : 약 1조 8,700억원(민간, 도시조성사업비)
- 간척지 양도 · 양수 추진 원활 및 진입도로 개설(2014 국비 50억원 반영) 등으로 활성화 예상

7

❖ 중국아일랜드 조성

- 경관이 수려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도서지역에 중국인 취향에 부합한 시설을 갖춘 중국인 전용 위락휴양단지 조성(통합의학시설, 카지노, 쇼핑센터)
- 카지노 관련법률(관광진흥법, 경제자유구역 등) 개정
- 자연경관 활용, 중국인 선호 테마정원 조성(3國園, 자연생태원, 염생식물원 등)
- 중국 화교상인, 민간기업 대상으로 투자유치

❖ 허니문 파라다이스 조성

- 중국인 중심 급증하는 해외 신혼여행객(중국 연 1,278만쌍)을 대상으로 청정바다와 갯벌, 백사장을 보유한 섬 개발을 통해 휴양과 건강을 주제로 신혼부부만 입장 가능한 국제 허니문 파라다이스 조성
-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뷰티 & 피부치유센터, 동적해양관광시설(윈드서핑/요트), 갯벌체험장, 쇼핑센터, Smart Wedding 센터, 한옥단지 등 확충
- 서남권 주요 섬지역 대상으로 중국아일랜드와 함께 국가시범사업으로 지정 요청(기반시설 국비 확보 근거 마련)

❖ 크루즈 전용부두 건설

-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다도해 관광개발 등 완료 시 해외 관광객 급증 예상
- 전남관광의 취약점인 숙·식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크루즈 운항 필요
- 목포·완도·진도·흑산도항에 크루즈전용부두 건설로 서해안 크루즈허브 구축
 - 사업규모 : 3~5만톤급
- 정부(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의 크루즈 확충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 해양레저·수산복합관광타운 조성

- 낚시, 갯벌체험, 요트 등 해양레저수요 지속적으로 증가
 - 바다낚시 수요 : ('97)520만명 → ('00)585만명 → ('03)658만명 → ('11)866만명
- 다기능 수산관광시장과 주변지역을 활용하여 수산관광타운 조성
- 해산물 이용 퓨전 Sea food 전문레스토랑, 해상낚시터, 어항 및 관광항 기능을 겸한 다목적항 조성
- 농림수산업 시행지침(수산시장시설 개선, 수산물유통시설 건립)에 의거 추진

❖ 국제관광 먹을거리/살거리 확충

- 국제관광 먹을 거리(중국 전용음식점) 확충
 - 중국인은 속성상 자신들 음식을 중심으로 여행지의 고유음식을 곁들이는 메뉴를 선호하기 때문에 중국인 전용음식점 확충 필요
 - 지역 명물인 貝類는 중국인들이 주로 '죽'으로 먹는다는 점에 착안, 다양한 '죽' 개발 및 '찜', '튀김', '회' 등 다양화
- 국제적 살거리(쇼핑센터) 확충
 - 재래시장을 활용하거나 목포근교권에 대규모 (명품)쇼핑센터 확충
 - 흑산도, 백령도, 울릉도 등 3개 섬지역 면세점 확충 추진 중
 - 관광객이 여행도 즐기고, 염가에 양질의 특산물을 구입하는 것은 서남권이 '다시 찾고 싶은 지역'으로 인식될 것임

2 新 지역발전 거점 조성

❖ 무안기업도시를 공항과 항공산업 중심, Skypolis로 조성

- 항공 부품소재 및 MRO(Maintenance, Repair, Overhaul) 단지 조성
 - 항공 MRO(기체수리 및 정비서비스)산업 시장규모 700억달러(2020) 증가 전망
 - 아시아권 항공기 정비수요 31%, 정비시장 22% ⇒ 처리불가 9%는 미주(41%), 유럽(29%) 등 대항
 - 무안공항과 중국·일본의 지리적 지근성 활용, MRO 특화단지 조성
- 국제 소상품 무역단지(MTC : Muan Trade Complex) 조성
 - 무안공항, 목포신항, 호남고속철도 등 물류인프라를 통합 활용해 기존 무안기업도시 부지 일원에 소상품 관련 국제적인 생산·유통단지 조성
 - 국제상설전시관, 소상품 생산·가공단지, Biz Center 조성
 - 사업비 : 1조원(국비 4,000억원 : 국제상설전시관/생산가공단지 부지 확보 등, 지방비/민자 6,000억원 : Biz Center 및 생산가공단지)

11

❖ 국토 서남권 교통거점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 무안국제공항은 '서남권 허브공항 역할'에는 미흡
 - 이용객('13) : 13만 3,000명(2007년 11월 개항 이후 최대실적)
 - 노선 : 제주/상해/북경/마닐라 4개 정기노선, 천진/심양 2개 정기성 전세기 노선, 하노이/오사카/마카오/타이페이/세부/다낭/울란바토르/장가계 등 15개 부정기 노선 등 21개 노선 운항
- 호남고속철도가 무안공항을 경유하면, 전북 북부지역의 상대적 접근도가 제고되어 비로소 550만 호남민 거점공항 부상(익산~무안공항 : 40분)
- 수요창출 ⇒ 노선 다양화 및 증대 ⇒ 수요 증대의 선순환구조 정착 시급
-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 및 목포~제주간 해저터널(목포~제주간 167km) 연계, 서남권 국제 항공수요 증가에 대응
 - 서울~무안공항간 90분대, 제주~무안공항간 70분대로 수도권/무안/제주공항간 대체성 확보
- 인천공항과 무안공항간 국내선 연결 및 국내 주요도시간 저가항공기 운항
- 화물특화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항공기정비센터와 국제 소상품 무역단지 조성

❖ 환황해시대 대비 해양관광레저형 서남권경제자유구역 지정 · 개발

- 동북아 해양관광명소/환황해권 국제교역 거점 형성 및 외자유치 촉진
- 서남권 「해양관광위락형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L'자형 「경제자유구역벨트」 완성 : 인천(송도) ~ 황해(평택 · 보령) ~ 새만금 · 군산 ~ 서남권 ~ 광양만권 ~ 부산 · 진해권
- 대상지 : 무안공항, 목포신항, 압해 · 자은 · 도초 · 흑산도 일원 10.7km² (324만평)
- 휴양 헬스 & 뷰티관광 등 융 · 복합 서비스산업 및 해상풍력 관련산업 육성

❖ 진도항 배후지 개발(계속사업)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특별법」에 의거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 선도사업으로 추진 중
- 기존 항만시설 정비, 크루즈 · 마리나 시설 건설, 해양체험시설, 테마파크, 해양수련원, 박물관, 한옥 주거단지, 가족호텔 및 SPA, (수상)팬션단지 건설 등 복합휴양단지 조성
- 개발계획이 승인 고시된 지역(574,701m²) 우선 개발 : 1단계 지역

❖ 전남 서남권 의과대학 신설

- 전남은 16개 광역 시 · 도 중 의과대학(의과전문대학원 포함) 및 대학병원 등 의료인력 양성 기관이 없는 유일한 지역(보건복지부 지정 99개 전문병원 전무)
- 서남권에 도서지역 특화 의과대학 신설
- 보건복지부 의과대학 입학정원 상향 조정

❖ 임성 역세권 개발

- 호남고속철도와 남해고속철도 종점역으로 목포권의 관문으로 부상할 임성지구 역세권을 미래지향 친환경도시이자 서남권 관문/중심지로 육성
- '개발추진지구' 구성, 의견수렴을 통해 인근 남악신도시 개발과 연계 개발

❖ 목포역 주변 개발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 목포 역사 증축을 통한 쇼핑 · 음식시설 확충 및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 신교통수단 도입, 도시재생 프로젝트 연계, 목포 도시관광 특화기능 도입
-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현행 1.5배에서 1.7배로 상향함으로써 개발수요 촉진

3 농생명 융·복합산업 기반 육성

❖ 농생명 융합 수출전략단지 조성

- 농산물 개방 대응 및 중국 고소득자 대상 농생명 융·복합 수출전략단지 조성
- 대상지역 : 영산강 3-1, 3-2지구(영암호, 금호호 주변) 간척지(12,500ha)
- 농식품부 "간척지 이용 종합계획" 수립 시 반영, "농업형 자유무역지역" 지정

❖ 유기농 식품 융·복합산업단지 조성

- 친환경 유기농 소비시장(2011년) : 약 4조원 → 향후 시장규모 확대 전망
- 단기간 체류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친환경 유기농(O-therapy) 단지 조성
- 친환경 유기농 협동조합과 지자체가 공동 출자하는 민관합동방식으로 추진

❖ 국립종축사업소 분원 설치

- 구제역 등 가축질병 차단방역이 용이한 도서지역에 국립종축원(분원) 설치
- 전남도가 추진 중인 에너지자립섬 조성과의 연계, 축산분뇨 자원화기술 개발
- 농림식품부 종축산업 육성정책과 연계 추진

4 조선산업 및 농수산업 틈새전략 추진

❖ 조선산업 활성화 및 대중국 협력단지 조성

- 서남권의 중·소형 조선산업을 '수리·개조형'으로 특화하여 부산권과 중국에 차별화하고, 요트 중심 제조전략에 특화
- 조선산업과 재생에너지산업은 중국과 협력업체효과를 통한 틈새전략 추진
- 서남권에 대중국연계 부품산업단지 우선 배치(대불산단이나 서남권 신규 조성)

❖ 농수산물 수출 촉진

- 중국인들 소득수준 상승으로 인한 식생활 패턴 변화에 대응하여 전남의 친환경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고품질 농수산물 대중국 수출전략 추진
 - 중국인 1인당 소비량 1kg 증가시 130만톤(한국 수산물생산량의 40%) 수요 발생
- 국내 대규모 유통업체와 연계 추진
- 농생명 융합 수출전략단지와 유기농 식품 융·복합산업단지와 연계 추진

5 미래 해양에너지 생산 · 연구기반 구축

❖ 동북아 풍력산업 메카 육성

- 풍력시스템 Test-Bed 센터 구축 및 풍력전용 산업단지 조성
 - 신 · 재생에너지 전용단지(대불산단 내), 풍력전용산단(압해) 조성
- 산업통상부 해상풍력 추진로드맵, 녹색성장위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과 연계 추진
- 발전사업, 부품소재산업, 해상 플랜트 기술개발 연계 및 풍력발전단지 조성, 운영 경험 획득 후 풍력플랜트 수출전략 마련

❖ 차세대 신해양산업 육성 차원 해양플랜트 지원산업 기반 구축

- 해양플랜트시장 급성장 예상('12년 1,500억달러 → '20년 3,200억달러 → '30년 5,000억달러)
- 고부가가치 해양플랜트 지원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필요
- 해양플랜트지원선(OSV) 설계, 생산기술 연구기반 구축, 세계 선도기술 개발
- 산업통상부 해양플랜트 육성정책과 연계 추진

17

❖ 차세대 해양레저장비산업 활성화

- 지역 조선산업 등과의 연계를 통한 해양레저장비산업 발전 가능성 증대
- 요트 마린실크로드 및 동북아요트시티 조성
- 해양레저장비 생산기반 구축 : 해양레저장비 생산업체 유치/발굴/육성
-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동 · 서 · 남해안특별법」에 의거 추진
- 산업기반 확충(생산)과 마리나 개발계획 및 요트시티 조성사업 연계

❖ 국립 호남권생물자원관 건립

- 국립생물자원관 개관('07년, 인천)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생물자원 발굴 및 표본의 보관 · 관리에 물리적 한계 직면
- 국립생물자원관에 이어 국립생태원(서천, '13년 임시 개관), 낙동강 생물자원관 (상주, '14년 개관 예정), 강원권, 제주권 등 권역별로 설치되어 있으나, 전국에서 가장 풍부하고 다양한 생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호남권만 미설치
- 2013. 12월 목포 용해동 남항매립지 120천㎡(건물 10.9㎡) 건립 확정(2017년까지 472억원)

6 수산양식혁명(Blue Revolution) 위한 친환경 첨단수산기반 구축

❖ 2014완도국제해조류(산업형)박람회 성공 개최

- 식량위기와 에너지 부족 해결책을 바다에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시점에서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개최
 - 피터 드러커는 21세기에는 인터넷보다는 수산양식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망하다고 주장
 - 앨빈 토플러는 수산양식 등 해양산업이 정보화 시대 4대 산업의 하나
 - 윌리엄 하랄은 2018년이 되면 수산양식이 주력산업 부상
 - 해조류 · 미세조류는「바이오에너지의 寶庫」(에너지 블루오션)
 - 바이오에너지 생산에 과도한 곡물이 소요된다는 단점 때문에 최근 해조류나 미세조류를 활용한 바이오에너지 생산
- 주제 : '바다 속 인류의 미래, 해조류를 만나다.'
- 기간 : 2014년 4월 11일 ~ 5월 11일(총 31일간)
- 소요예산 : 150억원(국비 80, 도비 20, 군비 50) ※ 2014 국비 23억원 반영

19

❖ 대량생산양식단지 조성

- 해삼 등은 수온이 20℃ 초과할 경우 하면하지만, 서남권 연안해역은 해조류, 전복, 해삼 등이 서식하기에 좋은 냉수대(2℃ ~ 5℃ 낮은 수괴) 유지
- 급증하는 중국의 해삼수요에 부응하여 서남권 연안해역(진도)에 해삼관련 종묘생산과 대량양식단지 조성
- 해삼수출전략기반시설단지 : 신갯벌어업프로젝트와 연계 추진
- 해삼대량생산양식단지 :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과 연계 추진

❖ 신의 ~ 하의권 바다목장(Blue Seed Valley) 조성

- 신의 ~ 하의권에 바다목장을 조성하여 해양생물자원 중심의 종자산업 육성
- 해양종묘산업 R&D 단지, 종자산업 종합가공유통 Complex 조성
- 선상낚시, 어장 체험 등 해상목장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 농림축산부 시범적 종자산업 육성사업으로 추진
- 장도~지초도 인근 해상(완도 청산), 계도~대취도 인근 해상(고흥 도화), 내호도~외호도 인근 해상(강진 마량), 상변도~중변도~하변도 인근 해상(진도 의신)으로 확대

7 살고 싶은 섬 개발

❖ 국립 섬진흥센터 건립 및 도서개발촉진법 개정

- 신해양시대 도래로 섬은 고립, 수산물 생산지에서 영해·영토의 보루, 해양관광·여가의 장, 식량 및 환경문제 해결의 장, 해양개척 전진기지로 중요성 부각
- 섬 특성상 생활 및 생산기반 수준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장기간 소요 ⇒ 체계적 지원·관리할 수 있는 기관 설립 및 법 개정 필요
- 중앙부처 섬 지역 관리부서 분산 추진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섬지역 활성화 지원센터 설립(일본 「離島센터」)
-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관련법에 대한 인·허가사항 의제처리 가능 및 도서개발사업 국비 지원 확대 등 도서개발촉진법 개정 필요

❖ 국립갯벌생태자원관 설립

- 서남해 갯벌면적은 전국의 44% 차지, 미네랄·게르마늄·알긴산 등 인체 유익 성분 다량 함유
- 갯벌의 생물자원적 가치 증가로 보전·활용 위한 생태자원관 설립 필요
- 「연안관리법」, 「습지보호법」, 「갯벌생태지침서」에 의거 추진

21

8 지역 내외 연계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 목포~제주간 해저고속철도 건설

- 급증하는 중국 해외관광객 유치 위해 상해권~전남~제주~상해권 삼각벨트 구축
 - 목포~제주간 고속철도 연결, 상해권~목포/제주권~상해권 크루즈로 연결
- 제주도 관광객 1천만시대 도래를 맞이하여 서남권과 제주권 관광기간 루트화가 시급하나, 기상영향을 많이 받는 현행 항공기 및 선박위주 교통은 한계가 있으므로 육상수단인 해저터널 건설 필요
 - 특히 남해안권은 태풍·장마 등 자연재해 상습지역이자 기상이변 폭이 큼
- 해저터널 완공 시 항공기 이용자 78%가 해저터널 이용, 충분한 수요창출 전망 (완공연도 1,494만명)
- 신설구간(167km)
 - 지상(목포~해남 송지 66km, 2차로 도로 및 철도 복선 병행) : 2.8조
 - 해상교량(해남 송지~보길도 28km) : 3조
 - 해저터널(보길도~추자도~제주도 73km) : 8.8조
- 소요시간/사업비 : 서울~제주간 2시간 26분 / 14.6조원(국비)

❖ 무안국제공항 경유 호남고속철도 조기 건설

- 호남고속철도가 무안공항을 경유해야 호남 거점공항 부상(익산 ~ 무안공항 40분)
-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등 서남권 발전에 따른 장래 교통수요 적극 대처
- 사업량 : L = 66.8km (오송 ~ 목포 247.1km)
-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변경(무안국제공항 경유토록 노선 변경)
- 사업비 : 3조 1,400억원(국비, 2014년 400억원 반영)

❖ 목포 ~ 부산간 남해안 KTX 고속화

- 남해안 선벨트 3대 핵심사업(남해고속철도, 남해고속도로, 해안일주도로) 추진
- 수도권과 남해안권의 국토 양극체제 구축 통해 지역균형발전 및 해양개방형 국토공간 형성
- 목포 ~ 부산(297km) 고속전철 건설을 통해 소요시간을 100분 내외로 단축
- 동·서부간 형평성 제고 필요 : 부산 ~ 진주간은 완공 상태이나 전남 구간은 시작 단계이며, 목포 ~ 보성 구간은 철도시설 전무
- 사업비 : 3조 9,725억원(목포 ~ 순천간, 127.5km, 국비)

❖ 광주 ~ 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 서남해안과 제주도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수도권 접근도 개선, 수도권에서 서남해안으로의 관광객 유입 등 효과 기대
- 구간 : 광주(매월) ~ 영암 ~ 성전 ~ 해남 ~ 완도 89.4km
- 조기 건설 필요(광주 ~ 완도간 국도 13호선(137km) 4차선 확충에 23년 소요)

❖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배후교통망 확충

- 목포권에서 대불산단과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간 교통수요를 영산강하구둑과 목포대교로 수용 불가능
- 특히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활성화 대비 추가 진입로 및 영산강하구둑 대체도로망 확충 필요(영암 삼호 용당 ~ 목포 압해대교 7.0km)
- 수도권이나 광주권에서 진입을 위한 서해안고속도로(무안국제공항)와 연계 및 대불산단/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 목포간 극심한 교통난 완화 효과 기대

❖ 무안공항 ~ 순천간 중동부권 도로 개설

- 무안국제공항과 전남 중동부 내륙권간 접근성 개선으로 산업 물동량과 농수산물 수송 원활
- 전남 중남부 낙후지역 개발 촉진효과 기대
- 위 치 : 무안공항 ~ 나주시 금천면 ~ 순천시 상사면간 118.5km

❖ 물류수송 거점 구축을 위한 목포 신항 배후 교통망 확충

- 복합 물류수송 거점 구축 및 자체 물동량 창출을 위해 북측 배후단지 개발(47만㎡)
- 배후단지의 서남해안 수출입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목포 신항 우회도로(3km) 및 목포 신항 배후 철도 건설(7.25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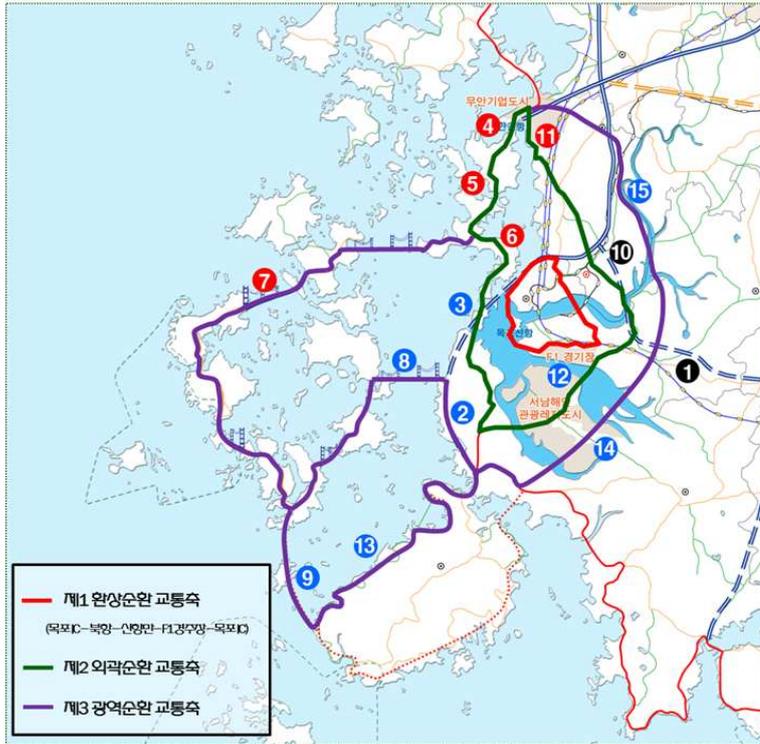
❖ 흑산도 소형 공항 건설

- 기상악화(연평균 100일 이상)로 관광객과 지역주민 불편 가중 ⇒ 소형공항 필요
- 활주로 총길이 1,200m, 폭 30m로 46 ~ 50인승 비행기 이 · 착륙 가능
 - 사업비 : 1400억원(국비, 2014년 15억원 반영)
- 면세지역 지정 시 상권 관광객 유치 활성화 기대

25

❖ 다도해 환상순환형 연륙 · 연도교 건설

- 새천년대교 건설(신안 압해 ~ 암태)
 - 사업량 : 10.8 km(교량 7.26)
 - 사업비 : 5,538억원(국비)
 - ※ 다이아몬드 제도 일주교통망 핵심으로 건설기간 단축 필요 : 현재 공정률이 20%이며, 2013년 예산 710억원, 2014년 450억원 반영)
- 신안 다이아몬드제도 연도교 건설(신안 암태 ~ 비금 ~ 신의 등 9개 섬)
 - 10지구 L = 13.7 km(교량)
 - ※ 새천년대교에 이어 암태(추포) ~ 비금간 연도교(7.55 km)가 확충되면 목포 ~ 압해 ~ 암태 ~ 자은 ~ 팔금 ~ 안좌 ~ 비금 ~ 도초 구간 육상교통을 통해 연결 가능
- 압해 ~ 화원간 연결도로 개설(국도 77호선, 압해 ~ 목포 울도 · 달리도 ~ 화원)
 - L = 13.4km (해상교량 2개소 2.13, 해저터널 3.08)



번호	사업명
1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건설: 106.8km
2	서해안고속도로 진도연장 (무안 일로~진도 군내): 43km
3	압해~화원간 연결도로 개설: 13.4km
4	운남~망운간 도로확장: 9.6km
5	압해~운남간 도로 확장: 6.4km
6	신장~북룡간 국도 4차로 확장: 10.6km
7	신안다이아몬드제도 일주도로망 구축: 13.7km(교량)
8	화원~안좌간 연륙교 건설: 16km
9	신안~진도 간 연도교 건설 (하태-지산): 18.6km
10	국도2호선 우회도로: 15km
11	무안공항 진입도로
12	서남해안관광레저기업도시 동축진입도로 개설: 10.9km
13	해안일주도로 국도 승격 : 20.3km
14	지방도 801호선 개설: 23.6km
15	광역도시계획 외곽순환도로 (지방도 825, 811호선 연계)

● 완료 ● 추진중 ● 계획

IV. 투자유치전략

❖ 국내 대기업 투자유치 촉진

- 전경련, 대한상의 등과 네트워크 구축
 - 목포상공회의소 중심의 투자유치추진기구 구성 및 전경련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요트특별회원제' 도입 등
- 대기업 연수·휴양시설 유치 등을 통해 대기업과 서남권 간 동질감 상승
- 목포권 대학과 공동으로 해양레포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전략산업 관련 R&D 개발 및 인력양성체제 구축을 통해 기업유치 활성화

❖ 외국 투자유치

- 중국이 자본수입국에서 자본수출국으로 변모한 여건을 활용, 對韓 투자 촉진
 - 대규모 단지 개발방식 ⇒ 소규모 THEME관광지 개발 후 네트워크 구축
 - 농촌에서 체류하여 여가를 즐기는 '녹색농촌관광' 활성화
 - 영세한 지역관광업체와의 인수합병을 통해 대형화, 전문화 유도
- 미국, 싱가포르 등의 투자유인방안 마련
 - 동북아, 특히 대중국전진기지 역할을 할 해양위락단지 투자유인 제공
 -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신기술이나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프로젝트 투자유인

V. 목포권 발전 선행과제

❖ 무안반도권 통합

- 4차례의 통합 추진 실패로 갈등의 골만 심화
- 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하여 '통합의 이점' 공감대 형성
 - 목포와 신안 공동 해양관광산업 육성, 목포와 영암 공동 모터스포츠산업 진흥 및 F1코리아 그랑프리 지역발전파급효과 극대화
- 개발가능면적 부족(인구밀도가 순천시와 여수시의 각각 16.4배, 8.0배)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이 쉬운 곳부터 먼저 추진하고, 어려운 곳은 나중에 통합하는 '선이후난(先易後難)' 전략 추진

29

❖ 대중국 전진도시 기능 강화

- 목포시와 자매결연 상태인 연운항시와 '절강경제발전특구' 중심도시인 영파시(절강성 해안도시)와 교류·협력기반을 구축하여 인·물적 교류 활성화
 - 고품질 농수산물 수출, 제조업 연관효과 극대화, 대규모 관광객 교류
- 서남권 광역「중국교류서비스센터」를 설치하여 행정지원 강화

❖ 서남권 이미지 - UP

- 왜곡된 서남권의 부정적 이미지 쇄신
 - 지역민 스스로 친절 / 청결 / 질서지키기 운동 전개
- 남도의 거점도시이자 대중국 전진도시로서의 자긍심 고취

- 17 -

30



감사합니다 !





서남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

박 병 옥

목포상공회의소 사무처장

2014. 1.

서남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

박병욱(목포상공회의소 사무처장)

목 차

I. 서남권의 여건

II. 서남권의 경제현황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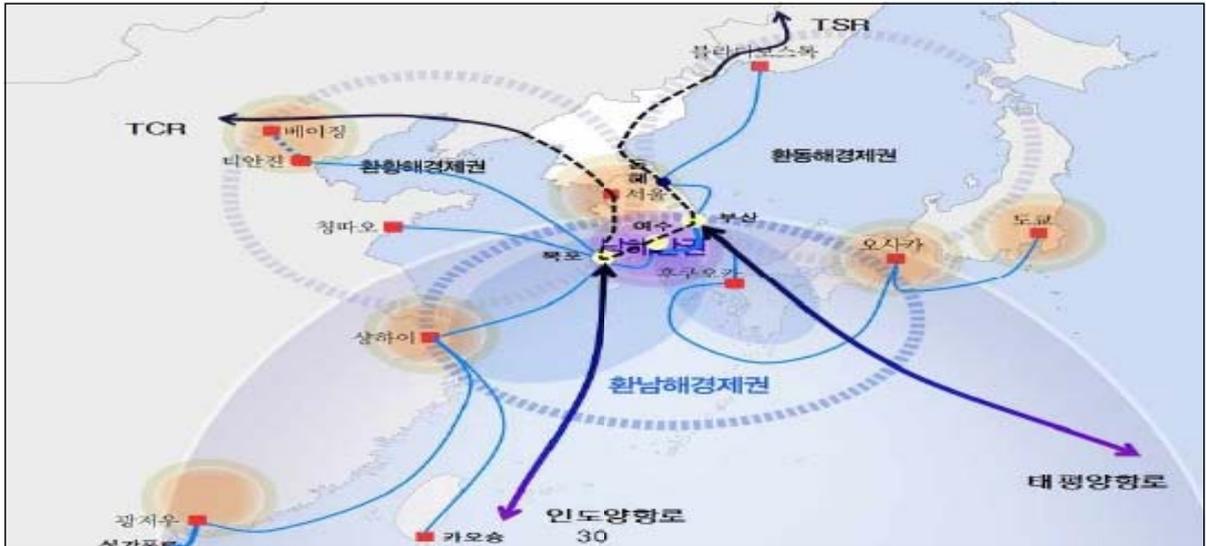
1. 현황
2. 특징
3. 시사점2

III. 서남권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1.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서남권경제자유구역 지정
2. 유턴(U-tern) 기업 유치
3. 방위산업체 지정 및 유치
4. 인력양성 체계 구축
5. 조선산업 육성
6. 남해안 고속철도 조기 완공

I. 서남권¹⁾의 여건

- 지정학적 여건은 대륙과 해양 동시 진출이 가능하고 국토 'L' 축의 중심, 중국 상해와 최단거리에 위치(목포~상해 간 671km, 군산~상해 간 790km, 인천~상해 간 917km)



- 경제권역으로는 「환황해경제권」, 「동북아경제권」 시대의 동북아 경제권과 한반도 핵심지역에 위치
 - 중국 : 동북(東北), 경진기(京津冀), 장삼각(長三角), 성투(成渝)지구
 - 일본 : 관동경제권(동경권), 관서경제권(오사카권)
 - 한국 : 수도권, 서남권, 광양만권, 동남권
- 산업구조는 농수산업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조선·신재생에너지·관광·물류 등 새로운 산업도 병행 발전
- 자연조건은 전국 최다의 일조량, 천혜의 해양자원을 보유한 전남의 섬·해양과 육지의 전이 지대
 - ※ 전남의 해양자원은 전국최다의 일조량, 해안선(6,457km, 전국의 50%), 갯벌(1,054km², 전국의 44%) 및 섬(2,219개, 전국의 62%)

1) 서남권에 대한 통일된 개념 정의는 없으나 통상 전남의 서남부 지역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자료의 인용에 필요한 한국은행 목포본부가 관할하는 1시 8개군(목포시,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을 서남권으로 한다.

II. 서남권의 경제현황 및 특징²⁾

1. 현 황

- 서남권의 2010년 기준 경제규모(명목 GRDP)는 12조원으로 전남 지역의 21.1%, 전국 시군*의 2.1%, 국내총생산의 1.1% 수준

* 서울 및 광역시 제외(이하 동일)

- 1인당 생산액은 20,527천원으로 이는 전남의 64.8%, 전국 시군 지역 및 1인당 GPI 의 87.2% 수준³⁾

2. 특 징

(1) 낮은 경제 성장률

- 서남권의 조사 기간 중(2007~2010) 경제성장률(실질 GRDP 기준)은 2.2%으로 전남(3.4%)과 전국 시군평균(4.5%) 수준에 미치지 못함

(2) 농림어업과 서비스업 중심 경제구조

- 서남권은 농림어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각각 15.2%, 52.6%로 전남의 8.3%, 40.0%, 전국 시군의 4.6%, 47.0%에 비해서 높은 편인 반면 제조업 비중은 21.0%로 전남의 37.9%, 전국 시군의 37.5%에 비하여 낮은 편임

3. 시사점

- 서남권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은 경제규모와 낮은 1인당 생산액, 취약한 재정, 국가예산 지원 소외 극복 필요
- 이를 위하여 경제구조의 다변화, 재원의 효율적 투자 및 지역 여건을 감안한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접근, 정부 재정 투자 사업에 필요한 서남권 시군의 협력적 예산확보 전략 중요

2) 서남권의 경제현황 및 특징은 “GRDP(2007~2010)로 본 전남서남권 경제의 특징 및 시사점”(한국은행 목포본부, 2013. 6. 21)의 자료를 인용하였으며 기준년도는 2010년을 사용하였음

3) GRDP를 인수로 나눈 1인당 GRDP는 해당 지역에서의 1인당 생산액을 의미하며 해당 지역 주민의 소득은 아님. GDP 통계에서도 소득을 나타내는 통계는 GNI로서 다른 지역과의 소득거래를 조정하여 별도로 발표하고 있음. 한편 광역 1인당 GRDP와 달리 전남서남권 1인당 GRDP는 비교를 목적으로 국민소득 통계 방식을 준수하여 자체 계산한 결과로 공식 통계는 아님

Ⅲ. 서남권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1.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서남권경제자유구역’ 지정

- 서남권은 일제 강점기 시대에는 3대항 6대 도시로 번창 하였으나 해방 후 정치적으로,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
- 민선자치 이후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서남해안권 관광레저도시 개발의 지연과 축소, 무안기업도시의 청산 등 낙후의 악순환이 지속
- 이러한 대규모 사업들은 시행착오, 정부의 재정지원 부족 등으로 기대했던 효과를 창출하지 못하였으며 전남도나 서남권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형편 상 자체적으로 대규모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에는 역부족
- 산업구조와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서남권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위하여 국내복귀기업과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적고 직·간접적 지원이 용이한 “서남권 경제자유구역⁴⁾” 지정 필요

【서남권 경제자유구역 개요(안)】

- 대상지역 : 무안공항, 목포신항, 신안군 압해·자은·도초·흑산도 일원
- 계획면적 : 10.7km²
- 사업비 : 1조 5,800억원(국비 2,250, 지방비 2,250, 민자 11,300)
- 연관효과 :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목포신항 등과 연계 시너지 효과 창출

*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2014. 2. 지정신청 계획

4)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3년에 인천경제자유구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2차로 2008년에 황해경제자유구역(당진, 아산, 평택),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3차로 2013년에 충북경제자유구역, 동해안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음(8개 지역)

2. 유테른(U-tern) 기업⁵⁾ 유치

- 국내 투자의 주요대안은 신규설비투자, 외국인 직접투자로 대별
 - 2012년 상반기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법인들의 신규시설투자는 6조 1,299억원으로 2011년 상반기 20조 7,897억원 대비 70.5% 감소 (한국거래소의 2012년 상반기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법인들의 공시현황)
 - 외국인 직접투자는 신고기준으로 2012. 9월말 현재 100억불 돌파 전년동기 47.7% 증가⁶⁾
- 국내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시설투자, 외국인 직접투자과 더불어 U-tern 기업의 선제적 유치 필요
 - 그동안 중국 등 신흥 개발도상국으로 진출했던 기업들이 현지국가의 임금상승, 낮은 생산성, 숨은 비용(재산권 보호 미흡 등) 증가 등으로 자국으로의 복귀가 진행되고 있음⁷⁾
- 정부에서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2013. 8. 제정(2013. 12. 7. 시행)하여 세제, U-tern 기업 전용산단 조성·입주 우선권 부여, 분양가·임대료 감면, 인력지원, 설비투자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내복귀기업(U-tern 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
- 서남권은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중국과의 최단거리, 항만, 공항, 철도 등 U-tern 기업유치에 유리한 조건을 최대한 부각하여 선제적 대응

전북 익산시에서는 중국에 진출하였던 귀금속 가공업체를 국내로 U-tern시키기 위하여 정부, 전북, 익산시 합동으로 칭다오를 방문하여 주얼리 기업 14개사가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에 730억원을 투자하여 107,404㎡의 공장을 설립하도록 부지매입비·설비투자 보조금, 공동기반시설 (R&D 센터) 구축 등 U-tern 기업의 성공적 복귀를 지원

5) U-tern 기업(국내복귀기업)이란 2년 이상 현지생산시설을 계속하여 운영하던 중 국내생산시설이 없는 경우 국내에 생산시설을 신설하거나 현지 생산시설을 매각 또는 이전 등으로 국내에 생산시설을 신·증설하는 기업을 말함

6) 조인형(2013. 1), “중국진출 유테른기업 광주지역 유치전략”, 광주발전연구원.

7) 외국의 경우 U-tern 기업 관련 미국의 Ford, GE, MasterLock, 일본의 소니, 토요타, 샤프 등이 자국으로 복귀, 우리나라도 2012년 KOTRA와 대한상공회의소 조사결과 해외진출 240개사 중 12.5%가 U-tern 의사 표명(2005년 조사 시 5.1%만 복귀 희망)

3. 방위산업체 지정 및 유치

- 해군 제3함대사령부가 2007년부터 서남권 지역으로 확대 이전 하였으며 우리나라 해군 작전 해역의 44%를 책임지고 있어 방산 물자의 신속하고 적기 공급이 필요함
- 그럼에도 해군 3함대 사령부가 위치해 있는 서남권에 함정의 건조, 정비 및 관련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방산업체⁸⁾가 없어 군사적·경제적 비효율 초래
- 서남권은 대불국가산단 및 해남, 진도 등에 조선관련 산업이 입지해 해군에 필요한 방산물자의 생산·수리 등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어 서남권에 있는 기업체 중 조건을 갖춘 기업체를 방산업체 지정하여 지역에서 방산물자 생산할 경우 군사적·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한편, 서남권은 동남권과 더불어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양대 축으로 대불국가산단은 70% 이상이 조선관련 업종이 입주해 있고 인근 지역에 다수의 조선관련 기업들이 입지해 있음
- 이러한, 서남권의 제조업 구조는 조선산업에 집중되어 조선산업 경기에 따라 지역경제의 호·불황이 좌우되고 있어 업종의 다양화로 지역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해군과 조선업의 연계발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방산물자 조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서남권에 방위산업체 지정 또는 유치 필요

8) 방산업체는 방위사업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보안요건들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방산업체를 지정함에 있어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함(방위사업법 제35조)

4. 인력양성 체계 구축

□ 지역 산업 및 기업 특성에 맞는 인력수요를 조사하여 맞춤형 교육훈련 후 기업체 현장에 인력 공급 필요

○ 전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운영 (2014년~)

□ 목포상공회의소 일자리사업 추진실적

○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사업(2011~2013)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참여기업 355개 업체 1,477명 구인

- 취업알선 565명

○ 시니어인턴십(2011~2013) : 만 60세 이상 노인

- 참여기업 75개 업체 165명 구인

- 취업알선 110명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생활도자기) 지원사업(2013) : 베이비부머 세대, 영세자영업자, 실업자

- 훈련인원 60명

- 취업알선 21명

○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사업(2013) : 만 50세 이상 미취업자

- 참여기업 18개 업체 48명 구인

- 취업알선 30명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사업(2013) : 만 40대 이상 중장년 퇴직(예정)자

- 참여기업 104개업체 311명 구인

- 취업알선 72명

5. 조선산업 육성

□ 전남의 조선산업 현황

- 조선사 73, 조선기자재 기업 220개사 등 293개사 집적
- 매출액 6조 4,541억원(대형 1개사 4조 2,318, 중소형 72개사 4,947, 기자재 220개사 1조 7,276)
- 전남의 조선산업은 전체 제조업 생산액의 10.9%, 서남권 제조업 출하액의 73% 차지

□ 조선산업 전망

- 전경련 분석에 따르면 LNG, 시추선은 호주, 러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가스 생산 계획 등으로 수주 증가 및 선가 상승 가능성이 있으며 해양생산 설비는 비용 상승으로 수주 감소
- 한국수출입은행은 중소조선은 제품 운반선 중심으로 점차 회복세, 국내 중소형조선소 수주 안정화가 전망되고 선가도 점차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되며 2015년경 큰 폭 상승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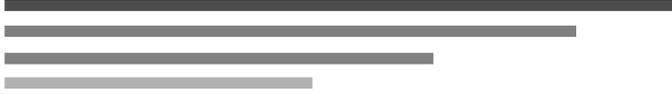
□ 조선산업 발전방안

- 해양레저 장비 산업 등 조선산업의 업종 다양화 필요
 - 대불국가산단 내 해양레저장비 생산기술 시험연구 장비 및 설비 생산지원 시설을 갖추고 관련 기업 2개사를 유치
- 해양플랜트 기자재(케이블) 및 해양플랜트 지원선 시험 평가 기반구축 생산기술 개발
 - 해양플랜트 케이블 시험연구센터 및 해양플랜트 지원선 연구센터 건립 추진 중
- 관광의 패턴이 육상 관광에서 해양레저 관광으로, 보는 관광에서 체험관광으로 변화하고 있어 녹색산업의 성장과 해양레저 관광의 트렌드를 흡인할 수 있는 그린·레저선박 프로젝트 추진 필요

6. 남해안 고속철도 조기 완공

- 서남권은 대 중국 교역 최단거리, 국토 'L' 축의 중심으로 지정학적·경제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아 동서 간 물류·관광·문화 교류를 통한 동반성장과 지역 갈등을 해소를 위하여 남해안 고속철도의 조기 완공 필요
- 철도는 물류·교통 분야의 녹색성장을 주도할 신산업으로 수송분담률은 2020년 14.9%로 증가⁹⁾가 예상됨
- 또한, 포항~부산~목포를 연결하는 인구 1,000만의 도시 링크로 거대 지역권(메갈로폴리스)으로 개발하여 영호남 갈등을 해소하자는 의견이 대두(매일경제신문·MBN 주최 비전코리아 제 22차 국민보고대회, 2013. 11. 28.)
- 그럼에도 '남해안관광벨트', '남해안 선벨트' 등 국가계획의 실행에 따른 서남권 국가 재정 투자 비중은 낮은 편임
- 특히, 남해안철도 고속화 사업은 동남권에 집중되고 목포~보성~순천의 복선전철화 사업은 박근혜 정부 공약사항에도 포함되지 않아 지역 간 개발 편차 심화 우려
 - 목포~순천~부산을 잇는 구간 중 부산~진주는 2012년 완공, 광양~진주는 2014년 완공 예정, 광양~순천은 복선 전철화 완공, 순천~보성은 단선 철도, 목포~보성 구간은 2006년 공사 중단이후 공정률이 5.6%에 머물고 있음
 - 목포~보성 간 철도 건설비가 2014년도 국가예산에도 미반영
- 향후, 전 역량을 결집하여 목포~순천~광양~마산~부산간(297km)을 잇는 시속 250km 운행이 가능한 고속전철 건설을 통해 목포~부산 간 소요시간을 100분 내외로 단축하여 지역균형발전 및 해양개방형 국토공간 조성

9)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1~2020) 제2차 수정계획(2011년,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로 분담률은 2008년 85.1%에서 2020년 84.5%로 감소, 철도는 2008년 14.7%에서 2020년 14.9%로 증가, 항공은 2008년 0.3%에서 2020년 0.4%로 증가, 해운은 2008년 0.15%에서 2020년 0.14%로 보합으로 예측



고부가가치 친환경 농수산가공산업 육성전략

신 현 경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원장



고부가가치 친환경 농수산가공산업 육성전략

신현경

JBF (재) 전남생물산업진흥원
Jeonnam BioIndustry Foundation

전남 서남권 산업의 특성



- 영암/목포 조선산업이 유일한 기간 제조업
 - 농업 및 어업이 주를 이루는 1차 산업지역
 - 농산물 및 수산물이 주된 생산물, 소득원
 - 중소 영세 농수산가공산업 산재
- 조선산업, 신산업 or 농어업에서 발전돌파구?

농·어업에서 신성장동력을!



- 국내 타지역에 비해 **경쟁력** (기후, 면적, 기술 ...)
- **친환경농업** 선점 (전국 69%)
- 농어업에 **첨단 BT, IT** 등 도입하여 융·복합화 함으로써 기술적 성장가능성 제시
- **생산(1차), 가공(2차), 유통·관광·서비스(3차)** 융합 하여 6차 산업으로 확장, 발전 가능성
- Jim Rogers (Rogers Holdings 회장)
“ 농업이 미래 성장동력이다! ”

미래 주요 트렌드



• 고령화

노인인구 급증



만성 퇴행성질환 증가
 예방위한 건강기능식품
 수요 급증

•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식량생산문제

• 가치변화

건강, 안전 행복 등 웰빙추구
 (LOHAS족)

• 글로벌화

경쟁력과 생산성

• 기술융합

IT, BT, NT, CT 등 기술융합

• 인구증가

지역별 식량 과부족 심화

농수산물을 가공하여 고가제품으로!



- 편리성, 활용성, 유통성, 저장성 증가
- 부가가치 발생
- 고용 창출
- 농수산물 과·부족시 가격 및 공급 안전판 역할

가공용 농수산 생물자원의 조건



- 집약적 생산가능성
→가공물량확보
- 자원의 생산성 (수확량)
- 기능함유소재 유리
→질병의 예방 및 치료, 건강의 유지 및 증진
- 유효성분(기능성분) 함량 높아야
- 비교우위 생물자원
- 스토리 및 역사가 있는 자원

전남지역의 비교우위 농수산물자원



- **식량작물** 친환경쌀, 고구마, 보리
- **채소류** 양파, 시금치, 울금, 갓, 겨울배추
- **과일류** 유자, 무화과, 배, 매실, 석류
- **특용작물** 녹차, 표고버섯, 울금
- **수산물** 천일염, 해조류(김, 미역, 다시마), 전복

친환경쌀 가공



- 전국 생산량의 **64.2%** (2011)
- 유기농 막걸리 및 고급 증류주 제조
- 떡 산업의 가능성
- 미강을 활용한 기능성 식품소재 개발
- 흑미 등 특수미의 활용 제품 개발

고구마 가공



- 전국 생산량의 **22%**로 **1위**
- **해남, 무안, 영암**에서 집중생산
- 호박고구마, 자색고구마 등 **기능별 품종** 육성
- 찐 고구마, 고구마 전분 등 **가공제품**
- **자색고구마**
식용색소, **간 건강** 및 **비만억제** 기능

양파가공



- 전국 생산량의 **55%** 생산
- **무안, 신안, 함평, 해남** 집중 재배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기능(건강기능식품)
- 강력 **항산화성분**(퀘세틴)함유 생리기능성
- 조미소재, 양파즙 등 다양한 **가공제품**

해조류 가공



- 전국 생산량의 **85%** 생산
- 식용목적의 **건조품 및 염장품**이 대부분
- 최근 조미가공품, 조미김 등 **2차 가공품** 증가 추세
- 해조다당류를 활용한 **항 비만 다이어트소재**로 최적
- 해조류로부터 미량 **생리활성 성분**의 개발 (항암소재, 화장품 소재)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의 역할과 기능



- R&D 및 기업지원활동을 통한 전남지역 고부가가치 생물산업 육성 기관
- 지역 농수산물자원 → **첨단기술** (BT,NT,IT 등)
 → **식품, 의약품, 화장품, 기능성제품** 생산 지원
- 창업/보육활동 (100개 기업)
- 시제품 생산, 품질관리
- 7개 연구기관, 연구원 250명, 연간예산: 400~500억
- 전국 최상위 경쟁력(기술이전 비율 등)과 재정자립율(73%)

진흥원 산하 특화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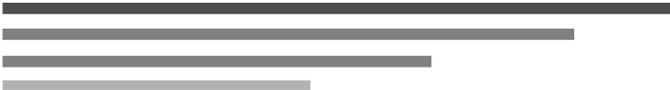
결론



- 지역 특산 및 비교우위 농수산물자원의 **고부가가치 제품화**
- 첨단기술 도입에 의한 **품질고급화 및 신개념 제품 창조**
- R&D활동의 강화
- 지역소재 연구기관의 적극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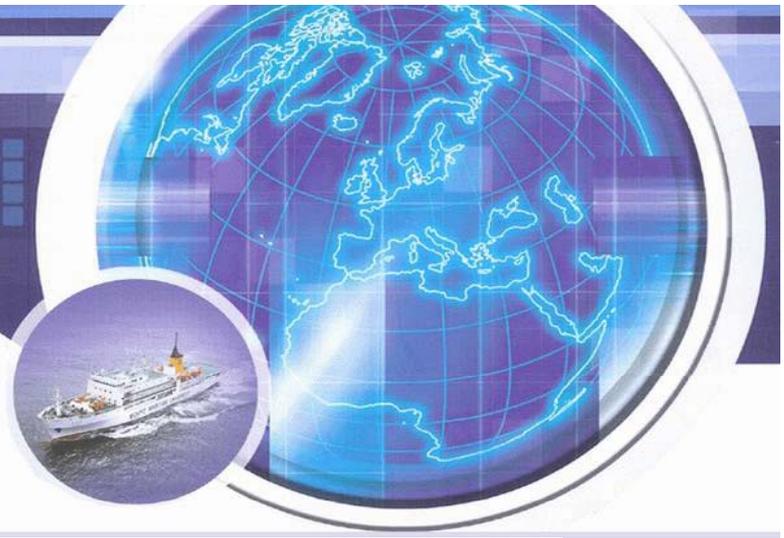
**서남권 기간산업인
농·어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전남 특성화 산업인 해양레저관광 산업의 활성화 전략

박 성 현
목포해양대학교 교수



전남 특성화 산업인 해양레저관광 산업의 활성화 전략

2014. 01. 09.

목포해양대학교 박성현 교수



National Mokpo Maritime University



목 차

1. 해양개발과 해양레저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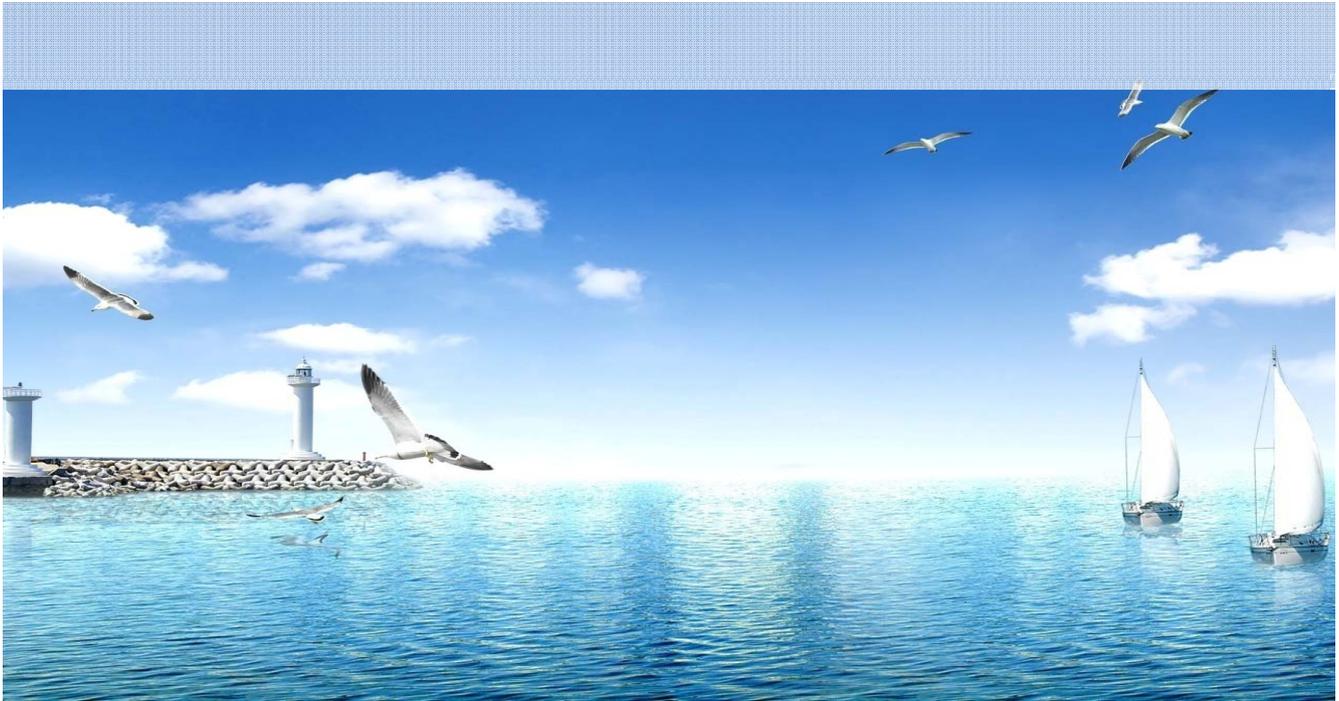
2. 전남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전략

3.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해양개발과 해양레저산업



무한한 자원의 보고. 바다



- 지구 표면적의 71%, 지구상 생물의 80%인 30여 만종의 생물서식
- 전략금속 및 석유와 가스 등의 화석자원, 수산자원, 에너지 자원의 저장고
 - 전략금속 이용가능연수 200년~1만년 추정(육지는 40~110년)
 - 석유, 가스 등 2018년 1억 2천 500만 배럴 생산예상
 - 수산자원 2억 4천만t~4억 5천만t 추정
 - 조력 및 파력 에너지 연간 9만 3천 Twh(전세계 발전 5배)

식량과 에너지, 경제재의 제공



- 바다생태계의 총가치 : 22조 5천 970억 달러(육지의 약2배)
- 바다관련 산업인 해운, 물류, 해양산업, 석유와 가스, 수산업은 2010년 약 7조 6천억 달러 → 2020년 13조 달러로 증가 예상



우리나라 바다의 여건

- 육지면적의 4.5배(44만 3천km²)의 바다 관할권 보유
 - 3천 170개 섬과 1만 1천 914km의 해안선 보유
1. 생활공간으로서의 바다
: 도서 슬럼화, 섬 생활 불편 -> 도서민 급감
 2. 경제공간으로서의 바다
: 어족자원 감소, 영세어업 -> 어민 노령화
 3. 여가활동공간으로서의 바다
: 해양레포츠 시설/제도 미비 -> 레저 활동인구 미미

주변국들의 해양정책 강화와 압박

- 동북아를 둘러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국가해양정책 강화
 - 배타적경제수역 선포로 바다자원 확보 전쟁
 - 주변열강들은 바다를 통한 국부창출 도모에 주력
- > 또 다시 호두까기(Nut Cracker) 속의 호두 신세

해양레저장비 산업

해양레저장비 산업

- 조선, 기자재, 해양스포츠, 금융 등 산업연관 효과 큰 산업
- 세계 선두 조선산업과 연계, 기술 및 관련 인프라 강화 -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산업

- 요트/모터보트 시장규모-세계 시장 약 470억불 규모 산업 (국내 2015년 7000억)
 - 신산업군으로 미래수요에 대비 새로운 수요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산업
- 선진국과 FTA 타결로 해양레저장비 시장 전면 개방시
 - 국내 해양레저장비 시장 선점 우려, 국내 대응산업이 요구됨
 - 요트/모터보트 완제품 국내생산기반 취약, 80-90% 이상 수입의존
- 국내현황
 - 40여개의 조선소, 50여개 부품/수리 업체, 50여 엔진 및 항해·통신업체 전국 산재
 - 자본 영세성으로 기술 보유와 축적에 한계

해양레저장비산업육성을 위한 중앙정부, 지자체의 강력한 의지 표명

해양레저산업의 특징

✓ 해양레저 3대요소가 상호 보완적으로 동시 발전 필요

바다 또는 수상에서 벌어지는 레저관광 서비스업, 레저 SOC, 장비제조 생산을 아우르는 포괄적 산업군으로 전후방 산업의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산업군

해양레저선진국 - 미국, 유럽

기 발전된 기반시설 순차적 집적화
레저/관광 → SOC → 산업/생산

이태리-비아레지오, 프랑스-라로셀
영국-폴-포트슬랜트, 미국-포트론데일

개도국 - 오세아니아, 아시아 등

SOC+산단/SOC+레저관광

호주-골드코스트-셴츨리코브
중국 - 핑시안 요트시티

< 해양레저산업 3대 요소 >



3대요소를 만족하는 한국형
자족 해양레저 산업 모델

7

전남 해양레저 산업

1. 전남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
2. 해양레저장비산업, 기자재 산업, 기반시설, 해양레저관광 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
3. 지역특성화에 적합한 산업,
4. 타 지역에 비교우위가 가능한 산업
5.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적합
6. 현재의 우리나라 해양레저산업 분석결과 문제점을 해결하고 해양레저산업을 활성화 시키기에 가장 적합
- 7 천혜의 해양레저 산업 해양환경 보유
- 8 해양레저장비생산업체 클러스터화 가능
- 9 다양한 해양레저활동 가능

8



2. 전남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전략



활성화 전략 1

- 타 지역과 비교 우위에 있는 다도해를 이용한 기반 시설 구축
- 허브항과 피더항 마리나 개발
- 수산업 위주의 어항 기능을 어업과 해양관광레저 기능으로 전환
- 기존의 어항을 개조하여 다목적 마리나 구축
- 해외의 피셔리나 어항 구축
- 해양공간을 개발하되 환경 친화형으로 개발
- 어항 시설을 활용하여 먹거리, 볼거리 제공
- 도시와 어촌의 교류의 장으로 활용
- ◆ 어업인 스스로 어업활동과 해양레저관광 사업에 참가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어촌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
- ◆ 해양레저 선박 운항 요원, 해양관광 안내요원, 해양레저 장비 생산 요원, 바다낚시 안내 요원 등 수많은 고용 창출

활성화 전략 2

- 해양레저 장비 생산 활성화 방안
 1. 생산 수요 창출 : 먼저 지자체와 지역 산업체 등에서 요트 발주
 2. 지자체 홍보용으로 요트 활용
 3. 산업체 홍보 및 직원 복지용으로 활용
 4. 기술력 확보와 경쟁력 확보를 겸하여 국내 및 해외 수출 시장 개척
- 무분별한 저가의 중고 요트 수입 문제 해결 → 등록시 검사 강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5조 (형식승인시험의 면제) 3호
 3. 외국정부로부터 형식승인을 받고 수입된 수상레저기구
- 해외 수출 활로 개척
- 레저 장비 기자재 국내 생산

크루즈 요트 및 보트



활성화 전략 3

- 전남해안 2,000여개 다도해를 이용한 다양한 해양레저관광 코스 개발
- 전남 요트길과 연계한 각 마리나 항별 해양레저코스 설계 → 홍보 책자
- 요트를 타고 즐길 수 있는 바다낚시 등과 같은 연계 상품 개발
 1. 기존 해양관광 콘텐츠 개선, 신규해양관광 콘텐츠 개발
 2. 테마형 다도해 개발 (2000여개의 섬들을 각종 테마를 가진 섬으로 개발)
웰빙섬, 중국역사의 섬, 일본역사의 섬, 리조트섬, 갯벌섬, 등산섬 등
 3. 산업체 연수, 동호인 모임, 가족단위 모임이 가능한 요트와 숙박 시설 구축
 4. 다도해 도서 지역 탐방 항로 설계, 전천후 해상 교통망 확보
(테마별, 계절별 항로 설계, 안전하게 항해가 가능한 교통망 설계)
 5. 전남해안권 관광 상품 조사 해양레저와 연계

항별 개발 계획



활성화 전략 4

전남 요트길 탐방 동기부여

● 연계자원을 활용한 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

▶ 먹거리, 역사·문화 자원, 인물, 바다낚시, 경관자원 등 활용

※ 사례 - 바다낚시 연계상품

- 일반어선 이용 바다낚시 상품

- 목 포 : 1인기준 7시간 150,000원
- 해 남 : 1인기준 3시간 80,000원

- 요트 이용 바다낚시 투어

- 제주 김녕 및 중문 요트 투어 : 1인기준 1시간 60,000원
- 선상바다낚시, 생선회, 노래방, 음료, 와인, 기념사진촬영 등

전남 요트길 탐방 동기부여

- 어촌 · 해양투자사업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 창출
 - 어촌체험관광, 어항개발, 경관조성, 역사 · 문화 관광
- 방문 동기를 자극하는 마린요트 대상지의 작명
 - 수문항 → 키조개가 맛있는 한승원 마리나 포구
 - 우수영 → 백의종군과 무소유가 공존하는 마리나 항구
 - 안도항 → 아름다운 비렁길이 있는 낚시 마리나 포구
 - 이목항 → 윤선도 마리나 항구
 - 동을항 → 녹차향이 그윽한 마리나 포구

민간투자 활성화 및 요트인구 확산

- 회원제 요트회사 유치를 통한 요트인구 확산 주력
 - 허브항을 기점으로 한 요트임대 및 투어회사 유치 : 5개권
 - * 2013년 : 3개권 (목포, 여수, 완도), 2015년 : 2개권 (함평, 보성)
 - 골프장, 호텔 등과 연계한 관광투어상품 개발 (회원권 분양 등)
- “요트대중화 선언” 누구나 손쉽게 요트를 배울 수 있는 요트스쿨 운영
 - 관련단체(요트협회, 동호회 등) 및 지역학교(목포해양대, 전남대 등) 주도
- 요트 등 해양레저 붐 조성을 위한 조정면허 시험장 확대
 - 현재 목포권에만 있는 요트면허시험장 여수지역 추가지정 건의
 - * 요트면허 : 전국 8개소 (전남 1), 조정면허 : 전국 14개소 (전남 2)

활성화 전략 7

- 전천후 부유체식 바다낚시터 개발 구축

- 수상 펜션 구축 : 도시민에게 바다 생활 체험 기회 부여
부유체식 바지선위에 수상가옥 건설, 수상 펜션, 민박집,
바다낚시터 등으로 활용
가족 단위 동호인 단위로 숙박과 바다 체험이 가능하도록 건설

- ◆ 국제수준의 해양 테마파크와 박물관 조성, 국제 수준의 해양축제 개발
(예 : 캐나다 나나이모 축제, 중국청도축제, 캐나다 국제갑각류축제 등)

활성화 전략 8

- 산학연관 **Network** 구축 (예, **RIS**, 클러스터 유치)

- 생산, 체험, 연구 등이 어우러진 클러스터 혹은 **요트 시티** 구축

- 해양레저 포럼을 통한 발전 방안 도출

활성화 전략 9

- 어촌 문화 자원 개발 → 관광 자원으로 활용
- 1. 해수욕장 설비 개선, 갯벌과 천일염을 이용한 해양생태관광 테마 개발
(예: 독일 슬레이비히 홀스타인 국립공원 바덴해 갯벌 체험, 호주강치 체험 축제, 호주 고래 체험 축제 등, 천일염 체험과 자원화 필요)
- 2. 고부가가치의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먹거리, 웰빙, 건강의 섬 개발)
- 3. 어촌 체험 축제 및 행사 추진
- 4. 갯벌 올림픽 개최, 갯벌을 이용한 스포츠 개발

활성화 전략 10

- 국내 크루즈 전용 항만 및 국제 크루즈 항만 구축
- 크루즈선을 이용한 관광객과 다도해 해양레저 관광 연계 시설 구축
- 전남해안 관광레저 루트 개발 구축



활성화 전략 11

□ 해양레저 문화 저변확대 전략 수립

1. 어린이, 청소년 해양레저 체험 기회 제공
2. 목포평화광장과 여수 가막만을 이용
2. 해상 안전망 구축 필요 (바다는 위험, 3재 등의 인식 개선 필요)
3. 지자체 및 회사 연수, 동문회, 가족 휴가를 전남권의 요트에서



3. 문제점과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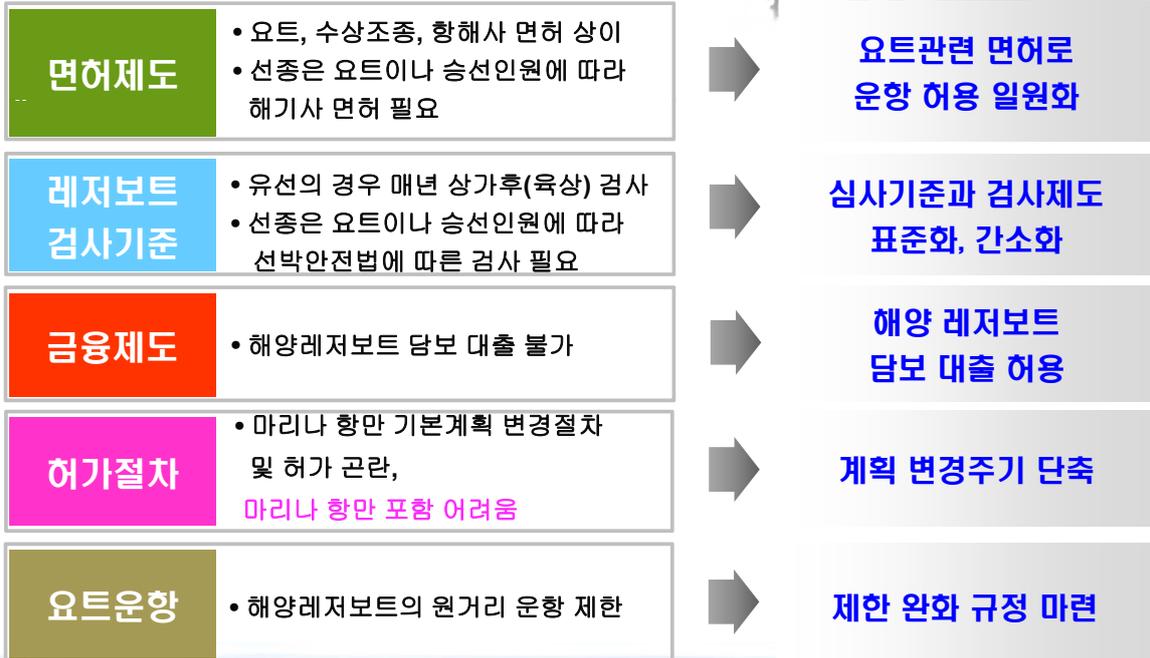
다도해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저해 요인 분석

- ❑ 기반 시설 절대부족, 국민 인식, 집단 이기주의
- ❑ 해양레저관광에 관한 많은 법과 규정 활성화 장애요인
- ❑ 수상레저안전법과 해양레저진흥법(가칭) 등 종합적인 법 마련 필요
- ❑ 수상레저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 정책 부족
- ❑ 5톤 미만 개인용 요트, 레저 보트 등록 및 검사 체계정립 필요
- ❑ 수상레저 활성화에 대비한 수색구조 체계, 안전 장비 생산 필요
- ❑ 항행구역을 선박에 따라 원양구역까지 확대 필요
- ❑ 해양레저 보트 요트 등 보험 가입 문제
- ❑ 각종 장비의 국산화 필요
- ❑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홍보 전략 필요
- ❑ 각 지자체간의 중복 개발 계획 문제

다도해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저해 요인 분석

- ❑ 각 지자체간의 **NetWork** 구축 필요
- ❑ 아름다운 다도해 개발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 필요
- ❑ 육상레저와 해상레저와의 연계 전략 수립 필요
- ❑ 해양수산부, 문화관광부 지자체간 협조 필요.
- ❑ 각종 해양레저 대회 개최 필요
(해경청장배, 해군참모총장배, 선주협회장배 요트대회 등)
- ❑ 일반 국민들이 쉽게 구입하여 즐길 수 있도록 저가의 장비 생산 필요
- ❑ 해양레저에 관련된 장비들의 국산화 필요, 수출 활로 개척 필요
- ❑ 기반 시설 구축에 많은 비용 소요 → 국가차원의 개발 필요
- ❑ 단순한 항해위주의 레저 산업 탈피 필요
- ❑ 초기 사업 투자비 과다 소요 → 민간 투자 회피
- ❑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에 대비한 전문 인력 양성 체제 구축 필요
- ❑ 해양레저장비 생산 수용창출 필요

▶ 마리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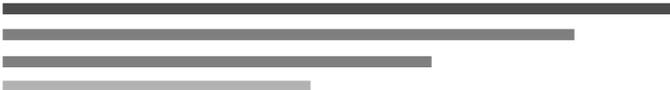
▶ 어항의 마리나항 조성의 자원조달 문제

- 국가어항은 어촌어항법으로 자원조달
 - 어항이용고도화 사업과 어항정비사업의 기본계획 평가 후 자원조달 가능
 - 동 사업 기본계획사업 평가 경쟁심화 (2개소/연)
- 지방어항과 어촌 정주어항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으로 자원조달
 - 어촌특화발전 기본계획 평가 후 자원조달 가능
 - 동 사업 기본계획사업 평가 경쟁심화 (8개소/연)
- 국가 · 지방 · 어촌 정주어항의 마리나 특화계획으로 민간투자 유치필요
- 정치권이 나서서 국비 확보를 해야 한다.

26

▶ 기타 문제점

-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
 - 출발항으로 부터 10해리 이상 해경에 신고 의무
- 선종은 요트이나 승선인원에 따라 등록(선박법), 검사(선박안전법), 운항 면허(선박직원법)
- 마리나 조성에 따른 국비 확보 어려움. 지자체 대응자금 문제 (50%)
- 외국산 중고 요트들의 형식승인 면제 (수상레저안전법)
- 다도해 국립공원 개발의 제한, 과도한 공원 지정, 기반시설 구축 어려움
- 시장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 의한 예산 배분
- 국비확보 필요 정치력이 가장 중요



재생과 협력 그리고 재활용을 통한 행복한 마을과 지역 만들기

정 대 철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문화농업 연구소 소장

재생과 협력 그리고
재활용을 통한
행복한 마을과 지역 만들기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문화농업 연구소 소장
정대철

목차

1. 토종을 살려야 지역이 산다.
2. 협력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과 지역연대사업
3. 치유의 전남 희망이 되는 전남

F1과 함께 하는 토종기업



목포의 대표기업



1941년 창업자 김창훈 회장에 의해 설립

경제적, 사회적 흐름에 따라 본사와 공장을 수도권으로 이전함
현재는 목포시의 행정적 지원을 받기로 하고 공장 및 본사를 목포로 이전 예정

하지만 그간 목포를 대표하는 한국제분, 보해 등이 현실적인 여건에 의해 목포를 떠나 외지로 떠남

단순히 고향을 등지고 떠난다는 비판의 목소리 보다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과 대책을 만들어 주고 지역에서 성장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행남자기 와 만드는 특별한 전남 축제만들기



영암경기장에서 진행되는 모터스포츠 대회기간 전남을 대표하는 상품들과 연계하는 이벤트를 진행하여 영암경기장을 찾아오는 외지인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며 전남의 대표 상품들을 홍보하는 장을 만들자

전남과 함께하는



내 몸이 즐거운 다양한 음식, 공연, 체험이 가득한 화순힐링푸드페스티벌!!

우리고장 화순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특산물을 이용하여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힐링푸드를 다양한 체험과 공연을 감상하면서 맛볼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준비하였으며 대규모 가수 초청공연, 건강체험관, 힐링푸드주제관, 물고기잡기체험, 동물농장, 전국 힐링요리경연대회, 힐링크래프트, 나무야 놀자 등 가족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2013화순힐링푸드페스티벌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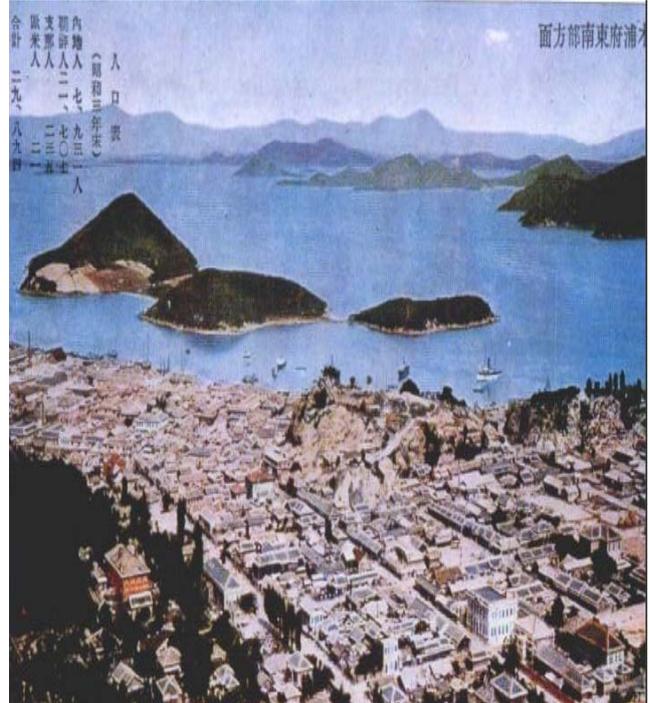
- 행사명 : 2013화순힐링푸드페스티벌
- 슬로건 : 건강한 음식! 맛의 향연!
- 기간 : 2013. 5. 16(목) ~ 2013. 5. 19(일)
- 장소 :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일원
- 주최 : 화순군
- 주관 :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
- 후원 : 전라남도, 한국관광공사



협력과 상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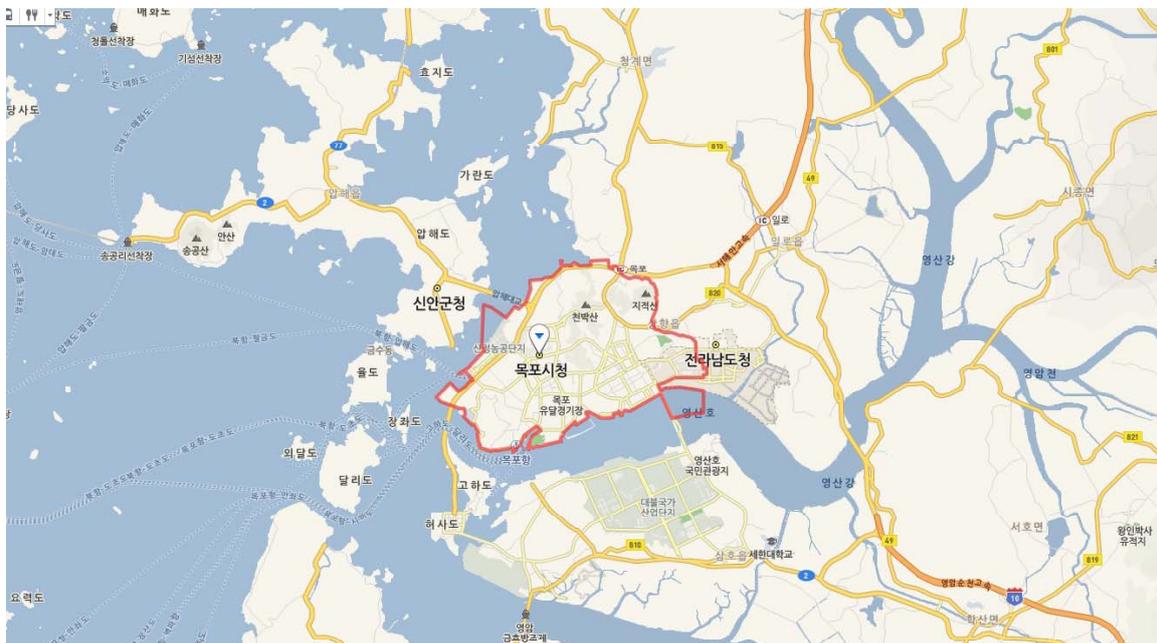


개항 전



개항 후

목포를 버려라





• 비비정 레스토랑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한 농촌마을에 자리 잡은 '비비정 농가레스토랑'.

농가와 레스토랑이라는 단어의 조합이 다소 어색하게 느껴지는 이곳은, 주차장이나 건물은 어느 도회지 레스토랑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하지만 비비정 농가레스토랑은 고향 할머니의 손맛과 농촌의 정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음식들로 손님을 반긴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화학 조미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차별화된 음식은 손님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비비정마을은 2009년 농식품부의 신문화 공간 조성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마을사업을 시작했다.

비비정 레스토랑은 농촌마을이 갖고 있는 환경과 문화 자원을 살릴 수 있고 마을주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70~80대 여성 어르신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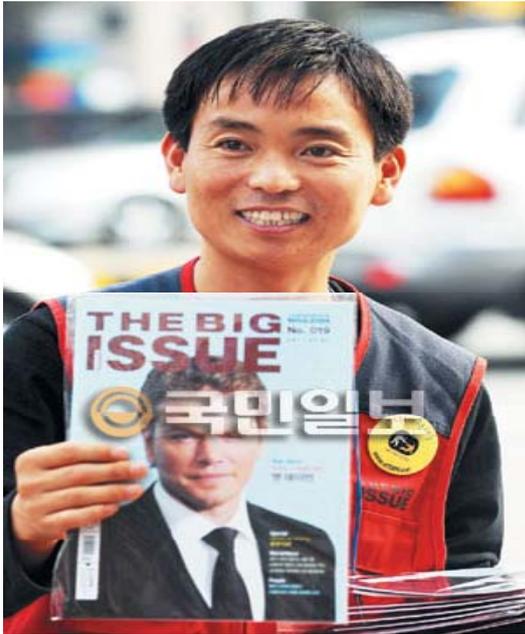


치유의 전남



- 빅이슈 (The Big Issue)는 1991년 9월 존 버드와 고든 로딕이 창간한 격주간 잡지이다. 《빅이슈》는 홈리스를 지원하기 위해 발행되는 스트리트페이퍼로, 잡지 판매대금의 절반 이상이 홈리스 출신의 판매사원(빅판)에게 돌아간다. 《빅이슈》는 현재 세계 10개국 15종이 발간되고 있다. 한편 한국어판인 《빅이슈코리아》는 2010년 7월 5일 창간되었으며, 아시아에서는 일본, 타이완에 이어 세 번째로 창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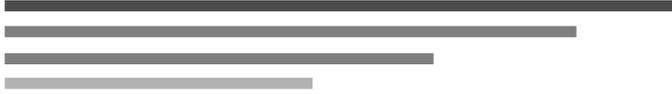
희망의 전남



‘빅판’ 오현석씨는 인터뷰 내내 웃음을 잃지 않았다. 대 인기피즘세가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주변의 따뜻한 관심이 나를 변화시켰다”고 말했다.
윤여홍 선임기자

- 전남을 희망의 땅으로 기억한다.
- 농어촌 일손 부족 해결
- 단 선발된 인원에 한하여 한다.

고맙습니다.



새해 벽두, 설국열차 안에서

김 선 태

목포문화방송 보도제작국장

새해 벽두, 설국열차 안에서

목포문화방송 보도제작국장 김선태

설국열차에 수많은 사람이 뒀습니다
제일 앞 칸에는 소위 이 시대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설국여행을 즐깁니다
중간 칸에는 그들 보다는 못하지만 그들의 눈치를 보는 기생 그룹들이 역시 불편하지 않은 여행을 즐깁니다
맨 뒤 칸에는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빈민들이 형편없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아비규환 같은 열차를 타고 있습니다
맨 앞 칸에 탄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위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맨 뒤 칸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위치를 지켜라
불행스럽게도 그 맨 앞 칸에는 종교인도 있고 언론인도 있고 지식인도 있고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다 있습니다

1.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설국열차의 어느 칸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맨 앞 칸에 탄 사람들은 뒤 칸에 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원래 게으르고 단결을 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만 하고 배우지 못했으니까 지금 이대우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나마 앞 칸에 탄 우리의 뛰어난 리더십 덕으로 이만큼이라도 사는 줄 알아라 하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또 합니다
불행하게도 여기에는 언론과 지식인들이 큰 몫을 합니다
끈임 없는 세뇌작업에,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선입견에 점차 동조해 가고 있고, 여기에 사상적으로 빨간 색까지 칠해 호남 고립이 더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도 한번 앞 칸에 타보자고 의견이 뚝뚝 뭉쳐져 후백제 건국 이후 처음으로 김대중이라는 사람을 이 나라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또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뽑고 우리도 한번 앞 칸에 타 보자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이 두 지도자는 앞 칸에 탄 사람들 미워하지 말고 설국열차에 탄 모든 사람들이 같이 행복해 지는 길로 가자고 역설했습니다
남북 평화와 서민 복지향상을 기치로 내걸고 지역 화합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의 피나는 노력은 다시 없던 일로 되돌려 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착역도 모른 채 또다시 설국열차의 맨 뒷 칸에서 2014년 1월을 맞이 하고 있습니다

2.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부의 격차 보다 더 서러운 것은 꿈의 격차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시 앞 칸으로 가고자 하는데 불행스럽게도 우리를 이끌어 줄 리더가 없습니다
꿈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지도자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요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당당한 지도자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맨 뒷 칸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형편없는 음식을 먹고 차별 받은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까짓거 얼마를 더 못 참겠습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데 우리는 왜 짝소리도 못하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도 짝소리 하고 살자고 아우성입니다
이 아우성이 올해는 더 할 것 같습니다
정의 없는 평화는 없습니다
맨 뒷 칸의 지도자들은 누구 보다 더 정의롭고 당당해야 합니다
도덕적으로는 말 할 것도 없고 올바른 신념이라면 목숨을 바쳐야 합니다
우리는 민주당의 지도자를 원하는게 아니라 민주주의의 지도자를 원합니다
이 민주주의의 지도자가 설국열차 맨 뒤 칸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지도자들 입을, 희망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정치가 밥 먹여 주냐? 하고 우스게 소리를 합니다
밥은 경제가 먹여 주지 정치가 먹여 주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 대한민국은, 특히 변변한 공장 하나 없는 전남은, 그중에서도 전남 서부권은 말 그대로 정치가 밥 먹여줍니다

세원은 없고 노령층은 많고 정부 지원은 적고, 한마디로 쓸 곳은 많은데 돈이 제일 없는데가 전남입니다

다른 지역 시장,군수들과 달리 전남 지역 단체장들은 발품을 한두번 팔아서 안됩니다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중앙부처 사무관 서기관들 까지 찾아 다니며 아쉬운 소리 하고 다닙니다

우리는 이런 국회의원,이런 도지사 이런 시장,군수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당선만이, 재선만이, 삼선만이 유일한 목표이고, 공무원 조직이 곧 선거조직이고, 시, 군 예산이 다음 선거를 위한 치적쌓기용 선심예산으로 전략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봐 왔고 또 지금도 이런 작태가 벌어지고 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치인들에게 묻습니다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 했다고 자부 하십니까?

주민들의 소득이 단돈 백원이라도 더 높아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자치단체장들은 선거 운동 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요

올해 선거는 이런 분들 뽑아야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런 분들 공천해야 합니다

또 하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해남화원 관광단지, J프로젝트, 5+2, 썬벨트 등등 우리를 설레게 했던 그 수 많았던 청사진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 사업들만 제대로 됐어도 지금 전남은 다른 모습이었을 겁니다

한번은 속을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속으면 그건 바보 멍청이에 다름 없습니다

민자 유치가 안돼서 그렇다고 얘기들 합니다

기반시설이 미흡하고 시장은 좁은 데 누가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또 누가 투자 하겠습니까?

결국, 또다시 투자의 악순환 속에 우리는 제자리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전남의 국회의원들은, 전남의 도지사는, 전남의 시장·군수와 도의원·시의원·군의원들은 이제 다른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정부가 약속을 어겼을 때는 중앙부처 앞에서 삭발이라도 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4. 생활정치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초본도 직접 떼어 보고, 자동차도 직접 운전하면서 엔진오일도 직접 갈아 보는 지도자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부대끼고 기쁨과 슬픔을 같이 누리는 것 곧 생활 속에 함께 하는 것이 생활 정치겠지요.

생활은 민생입니다. 서민들이 사는 생활입니다

기사가 운전하고 잡일은 비서가 다 하고, 작은 일은 남이 하고 큰 일은 내가 하는 정치는 생활정치가 아닐 것입니다

물론 몸이 둘이라도 바쁠텐데 이렇게 하시라고 주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작은 일을 모르고 어떻게 큰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 서민들은 북핵 6자 회담이 어떻고, 한미 관계가 어떻고 크게 관심 두지 않습니다

자동차 수리비가 너무 비싼 건 아닌지 , 아파트 관리비가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신호등이 너무 많은 건 아닌지 우리는 이런 생활 주변의 일상사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런 불편이나 모순을 해결해 주는 것이 생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자치단체장들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온종일 행사 다니기에 24시간이 부족합니다

물론 필요한 행사니까 가시겠지만 언제 백년대계를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언제 주민들의 불편함은 없는 지를 살피는, 작지만 아주 큰 생활행정을 하는 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전에 모 대통령이 머리는 빌릴 수 있지만 건강은 빌릴 수 없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럼 몸만 대통령이고 사실상 대통령은 참모들이라는 말입니까?

우리 주민들도 자치단체장, 행사장에 그만 초청합시다

하루에 단 몇 시간만이라도 생각하고 연구할 시간을 줍시다

자치단체장들에게도 묻겠습니다

양로원, 고아원, 경로당 또 그 수많은 불우시설들

위문품 전달하려고 수없이 가셨습시다만 정말 경로당에 난방비가 부족한 지 불우시설에 운영비는 충분한 지, 아니면 혹 예산이 엉뚱한 데로 세고 있는지 확인하러 가신지는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양로원에 위문품 전달하는 단체장보다는 양로원에서 노인들과 단 하루만이라도 24시간 먹고 자면서 느껴 보는 단체장을 원합니다.

재래시장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 혹 나이 드신 어르신들 미끄러지지는 않을까?

쓰레기 버릴 장소가 아닌데 왜 여기에 쓰레기를 버릴까?

내가 관광객이라면 이 교통 표지판을 보고 제대로 찾아 갈 수 있을까?

우리 생활 주변에 널려져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는 단체장을 우리는 원합니다

5. 큰 틀에서 생각합시다

지난 95년부터 우리는 네차례에 걸쳐 무안반도 통합을 시도했습니다
아쉽게도 모두 무산되고 말았습시다만 왜 무산됐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식구가 10명인 가족이 3명인 가족한테 더 잘 살게 해 줄 테니 같이 살자고 하면 누가 살겠습니까? 저 같아도 못 살아도 좋으니 우리끼리 산다고 할 것입니다. 세대주도 당신 이름으로 하고 큰방도 당신이 쓰고 돈 벌면 당신네 가족부터 먼저 좋은 옷 입힌다고 각서를 써도 될까 말까 한 일입니다

차기 목포시장은 무안반도 통합에 지금과는 다른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목포시는 인구밀도가 비수도권 도시로는 유일하게 전국 톱텐 안에 랭크돼 있습니다

이제 개발할 땅이 없습니다

무엇을 얻을까를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줄 것 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상생울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가지 서해안시대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한,중 수교 이후 서해안시대가 곧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중국인 근로자 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목포시는 한국과 중국이 수교되던 해 중국 연운항시와 자매관계를 맺었습니다. 목포와 연운항시는 같은 위도에, 거리는 4백여 킬로미터, 목포~서울 거리 정도의 최단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운항시는 TCR 이라는 중국횡단철도의 기점입니다

그동안 한국의 기업들은 TSR이라는 시베리아횡단철도를 통해 중앙아시아와 유럽쪽으로 화물을 수송했으나 거리가 2천킬로미터가 멀고 운송비가 많이 들어 지금은 중국횡단철도로 더 많은 물량이 수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목포를 두고 인천, 부산등지에서 연운항으로 수송되고 있습니다

관광객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서울과 제주로 몰리지 목포를 찾는 중국인은 보기 힘듭니다

가깝고 볼 거리도 많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전용관광단지나 신혼부부 전용관광섬 개발 등 보고, 즐길 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젠 목포시만 나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인근 시·군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큰 틀에서 멀리 보고 함께 가야 다같이 잘 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요약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국열차 맨 뒤 칸의 지도자들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몸을 바치십시오
민주주의가 찬란히 꽃 필 때, 지역 차별이 없어지고 ,능력을 인정받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빵을 먹을 수 있는 희망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공식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준공식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정부에서는 수많은 청사진을 제시 합니다

전남의 특성에 맞게 이런 계획으로 이런 사업을 얼마를 투자해 언제까지 완공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정말 이렇게만 되면 우리 전남도 잘 살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갖기에 충분 합니다. 그러나 이 청사진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정치인은 찾아 보기 어렵습니다. 하다못해 이 계획이 이런저런 이유로 늦어지고, 무산된 것은 애초에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럼 그 입안자를 문책하라고 물고 늘어지는 정치인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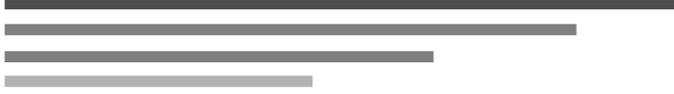
시작과 끝이 함께하는 정치, 뻔은 말에 책임지는 정치를 원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갈치를 파는 갑들이 엄마의 하루 24시간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알려고 노력하는 정치를 원합니다

큰 틀에서 멀리 보는 정치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 아들 딸들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꿈이 없으면 미래를 그릴 수 없습니다.



참고자료

2014. 6. 4(수) 실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시 사항	기준일	관계법조
2014. 1. 15까지	수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법§4, §60의2① 규§2①②
1. 25까지	토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규§51①② 규§26의2③
2. 4부터	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일 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2. 21부터	금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법§60의2①
3. 6까지	목	각급선거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비례대표지방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후보자 등록 신청전까지)	법§53①②
3. 6부터 6. 4까지	목 수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3. 23부터	일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법§60의2①
4. 5부터 6. 4까지	토 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5. 15부터 5. 16까지	목 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까지)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5. 16부터 5. 20까지	금 화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 이내	법§37, 규§10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법§38, 규§11
5. 21까지	수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법§64② 규§29④
5. 22	목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법§33③
5. 23까지	금	책자형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법§65⑤ 규§30④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② 규칙§29②⑤
5. 26까지	월	부재자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9일까지	법§65⑤, §154①⑤ 규§77
5. 26에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9일에	법§44①
5. 28까지	수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⑤, §153①② 규§76
5. 30부터 5. 31까지	금 토	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투표소 투표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8의3④
6. 4	수	투표 (오전6시 ~ 오후6시까지)	선거일	법 제10장
		개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제11장
6. 16까지	월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법§122의2③ 민법§161 규§51의3①
7. 4까지	금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선거일후 30일 이내	법§57① 규§25①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 제출	선거일후 30일까지	정금법§40①
8. 3이내	일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 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MEMO-

MEMO



MEMO



MEMO

